

2020
행복복구문화재단
문화예술담론지

Vol. 1

담지

문화예술을 담는 민민한 그곳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함지



GREETING 발간 인사

05P

SECTION 01. 시대를 담다

1.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 13P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 차재근
- 19P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 김기석
- 27P 문화자원을 토대로 발전한 해외 사례 연구 * 이병민
- 35P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 이선옥
- 45P 국회의원에게 들어보는 지역문화 * 김승수

2. 감염병이 바꿔 놓은 시대

- 55P 예술가가 존재한다 * 최현묵
- 65P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분야의 활동과 정책평가 * 임학순
- 75P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이재태
- 85P 코로나19 시대, 무대예술은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 원종원

SECTION 02. 기억에 담다

- 95P 이태원의 소설 「객사」와 고향 칠곡에 대한 회상 * 이기원
- 105P 팔달교를 건너며 * 박순국

SECTION 03. 과거를 담다

- 119P 연암서당골 여행(餘幸) * 서상우
- 129P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이야기 * 김지형

발간 축하인사

139P

GREETING

발간 인사

북구의 한가운데 함지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 오르면 유려하게 흐르는 금호강과

우리 고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과 기운이 좋은 북구의 명산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고, 조상을 귀하게 모시는 고분을 올렸습니다.

바로 5~6세기, 함지산 능선을 따라 조성된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입니다. 이는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우리 북구가 우수한 문화를 가진 곳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구는 비옥한 토지로 신석기시대부터 군락을 이룬 지역의 뿌리가 있었던 곳이며 굽이마다 절경인 금호강을 따라 선조들의 빼어난 선유문화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교통의 길목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이며, 도시의 산업을 견인했던

3공단과 검단공단이 자리한 북구는 불이 꺼지지 않은 열정의 심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고향을 사랑한 작가, 이태원의 문학이 곳곳에 스며있는 북구.

무엇보다 참으로 예술을 즐기고 함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복한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을 지원하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함지산은 생김새가 함지박을 엮어 놓은 것과 흡사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함지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가 북구를 밝히는 광경을 보며 어찌면 이 산이 오랜 시간 우리를 바라보며 이 땅의 이야기를 묵묵히 담아 두고 있는 그릇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0년 9월, 우리는 새로운 「함지」를 만들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단단한 문화예술 그릇에 진솔하게 '시대를 담아'내고, 자칫 흘러버릴 '기억을 담아'내며, 다채로운 일상이 가득한 '북구를 담아'두겠습니다.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는 오늘날의 문화 흐름을 기록하고, 마주한 문제를 탐구하며,

예술인들의 생각을 듣고, 지역의 문화를 집적하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책으로 시절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찬란히 비추던 그 날의 햇살처럼 문화예술 전반을 사료(史料)하여 훗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사료(史料)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란 자고로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모든 인생을 가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소중한 삶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는 우리 모두의 문화예술을 담은 만만한 그릇으로,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아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배광식

GREETING

발간 인사

행복북구문화재단은 대구에서 유일한 담론지 「함지」를 창간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담론지를 ‘왜 창간하느냐?’, ‘문화예술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출간한 「함지」. 그 시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 현장은 왕성히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에 비평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늘 따르지만, 지금까지 관련 매체들이 출간을 멈추고 있거나, 자료만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담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즉 담론의 부재는 나침반이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배에게 그저 세상은 일망무제의 망망대해로 결국 존재의 의미마저 희석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 현상들을 직시하고, 예술 활동의 객관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담론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단순 소식지를 넘어 비평의 성격을 겸하는 담론지를 출판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루틴을 바꾸는 일과 닮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문화를 다루는 일선인 문화재단에서 담론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예술을 바르게 읽어내고 깊이 있게 전할 필요와 의무의 가치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함지」는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균형 있게 관찰하고 아카이빙(Archiving)하여,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담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현장의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 예술가, 문화행정가들의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는 매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양에 뿌리내린 나무가 알찬 과실을 배듯, 견실하고 양질의 문화 생태계에서 훌륭한 작가와 작품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담론으로 지역문화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살피고, 훌륭한 예술작품을 찾고 좋은 재원은 부각시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함지」에 격려와 힘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지」 출간에 적극 의견 주시고 동참해 주신 편집위원님들 감사드리며, 도시 문화와 창작의 동력이 되는 건강한 문화예술담론지 「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태현

SECTION 01.

시대를 담다

- 1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 2 감염병이 바꿔 놓은 시대

시

시대를 담다

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핀란드(Finland) 청년 야코 블룸베리의 초대를 받은 건, 2017년 여름 헬싱키(Helsinki)에서 있었던 ‘하늘아래 저녁식사’ 행사였다. 당연히 산꼭대기나 고층 건물의 스카이라운지를 연상했다. 아뵘새! 도착해보니, 도심 한가운데 2차선 좁은 길 1,200미터(m)를 막아 합판으로 만든 접이식 테이블을 한 줄로 이어 놓고는 하얀색 식탁보를 덮었다. 그렇게 2천 석의 식탁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6시, 시민들은 각자 사전에 예약한 테이블을 장식한다. 생일, 친구, 가족, 커플 등 다양한 모임의 의미를 담아 준비해 온 술이나 음식에 맞게 테이블을 꾸민다. 어떤 테이블은 촛불을 밝혀 소박한 반면, 생일파티를 준

비한 테이블은 꽃이며 포도주잔에 화려하기 그지 없다. 음식은 만들어오는 것이 기본이나 인근 레스토랑 혹은 시장에서 사 와도 상관없다. 자주 만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고, 마음 속에 담아두고 꺼내지 못했던 심사도 풀어내며, 삶을 즐길 유쾌한 작당도 쏟아낸다. 옆 테이블과 음식도 나누고 레시피도 자랑한다. 그렇게 두 시간이 흘렀을까. 저녁 8시가 되자 사방이 조용하다. 끝이다. 물론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신호도, 잡상인과 노점상, 쓰레기며 주정뱅이도 없다. 주최 측이 하는 일은 테이블 세트를 준비하고 수거하는 것이 전부다. 시 정부는 차 없는 길을 만들어줄 뿐이다.

놀라운 것은 ‘하늘아래 저녁식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티켓은 예약 오픈 즉시 동이 난다.

이튿날, 헬싱키 전역 동네마다 열린다는 ‘클리닝 데이’를 찾았다. 청소하는 날. 우리도 긴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곤 한다. 세계 어느 나라이건 비슷하다. 야코는 별나게도 이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하나 더했다. 집집마다 쓰지 않는 것, 쓸 만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동네 공터나 잔디밭에 내어놓고 이웃과 나누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다. 깨끗하고 쓸 만하다. 그때 총동구매를 한 물건들을 나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상업적 셀러(Seller)는 보이지 않았다. 물건에 얽힌 서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행복하다. 집에서 만든 하우스 맥주며 과실주도 흔쾌히 내어 나누며, 분위기를 한 몫 거들었다.

사진 1. 하늘아래 저녁식사(출처=필자 제공)



사진 2. 야코 블룸베리(출처=필자 제공)



청년 야코가 일하는 방식,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밥은 생명이다. 삶 곧 문화의 어원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경작하다'에서 왔다. 하여 '하늘아래 저녁식사'는 '밥이 하늘입니다'라는 경전 글귀를 높은 곳이 아닌, 낮고 작은 거리에 새긴 밥상공동체이다. 개인과 가족공동체의 청소 행위를 통해 이웃, 지역사회와의 나눔과 소통의 기회로 삼고, 쓰레기도 줄이며 재활용의 기회도 늘리는 환경적 가치를 확산해 간다. 따지고 보면, 문화가 복지나 환경을 포함하는 것인지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후에 야코를 한국에 초청했을 때, 그는 헬싱키 시민상과 핀란드 청년 어워드를 석권하고 의기양양 방한했다. 그의 작업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 주었다. 거기다 '서양철학은 신과의 관계, 동양은 사람 간의 관계에 바탕하니 자넨 동양적 작업을 한 셈이야'라고 했더니, 겸연쩍이 웃으며 손사래를 친다.

그냥 유쾌하고 행복하게 했을 뿐이라고,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닌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 무슨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한 방 맞았다. 본디 고수는 중무장하지도, 나라를 구할 일도 꿈꾸지 않는다. 한데 작고 유쾌한 시작들이 도시를 바꾸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며 문명이란 도시를 풍요롭게 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청년 야코가 한 일들을 사회적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책정해야 할까.

'하늘아래 저녁식사' 때, 야코는 헬싱키의 주요 문화 활동가들을 나의 테이블에 초청하여 여러 분야의 많은 핀란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그중 한사람이 합창단 지휘자 조앤나 부부다. 조앤나는 세계합창올림픽 그랑프리를 연속 수상한

핀란드의 동호인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다. 그들이 만든 '칼리오 문화네트워크'는 합창활동을 넘어 젊은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활동의 기회를 늘려주었으며, 인디 음반을 기획 제작하여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요즘 진행 중인 일은 더욱 놀랍다. 헬싱키의 쇠퇴한 원도심인 칼리오 지역의 빈 건물을 활용해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평범하게 시작한 시민합창단이 문명의 다른 이름인 도시를 어떻게, 또 어디까지 변화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조앤나의 꿈대로 한국에 꼭 와서 연주도 하고, 도시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다. 삶의 전환으로서의 문화가 어디 유럽에만 있을까.

한형석(韓亨錫, 1910~1996). 여섯 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던 부친 동해 한흥교(韓興敎, 1885~1967) 선생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 열살 때 독립선언문을 몰래 전달하며 시작한 그의 항일 활동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예술조장,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 OSS특공대, 동포송환작전까지 무려 3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독보적인 항일예술가,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의 작곡가, 동아시아 문화예술교육의 호시, 아시아 공공예술의 선구자 등 다양하게 불리는 한형석 선생은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다. 호칭을 하나 더 흥미롭다. 1967년 3월 하인리히 뤼브케(Heinrich Lübke, 1894-1972) 당시 서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형석은 부산 환영 행사의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서울은 양국 정상의 초상화를 시내 곳곳에 내걸었고 공식 환영 행사를 알리는 것은 의당 군악대의 환영 팡파르였다. 하지만, 한형석은 발상 자체가 달랐

다. 두 정상의 초상화 대신 동래부사 송상현, 정발장군, 다대포 첨사 윤흥신의 초상화를 걸었다. 부산이 가진 역사적 인물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자존감을 나타낸 것이다. 뤼브케 대통령이 환영행사장에 들어서자 기발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박이 일제히 뱃고동을 울려 환영한 것이다. 군악대를 대신한 뱃고동 팡파르, 항구도시만이 해낼 수 있는 유니크한 콘텐츠였다. 또, 한형석은 증곡 천재동(千在東, 1915~2007)에게 <동래야류(東萊野遊)>를 퍼레이드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소멸 위기에 있던 민속 문화가 거리의 연행으로 실현돼 전승의 계기를 만들었고, 거리예술과 공동체 예술의 전형을 만들었다. 엄숙하고 폐쇄적인 서울의 환영 행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산이 가진 문화 다양성과 시민 공동체 정신에 기반을 둔 독창적 환영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이 같은 한형석의 문화기획 철학은 5년 뒤 1972년에 만든 <제1회 부산시민의 날 기획서>에 더욱 깊이 투영됐다. 기획의 기본이념에 이런 문구가 있다. '과거 부산시민이었던 우리 조상의 빛나는 얼'. 조상을 '부산시민'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시민의 날은 관 주도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시민축제임을 천명했다. 각 도시가 매년 되풀이하는 천편일률적인 축제를 지양하여 신선하고 참신한 축제를 제안, 민관협력 추진집행체계를 주창했다. 모범 경찰 표창을 위한 선정과정 또한 기자회견에 맡긴다. 계획서 3쪽에 '거듭 말하지만, 이 일련의 행사를 꺾는 원칙은 자발적 참여에 있다. 시민의 날은 시민 개개인이 방관적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데 그 의의가 깊

사진 3. 칼리오 문화네트워크의 조앤나(출처=필자 제공)



다. 이어 4쪽엔 ‘가가호호에서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행사를 설정’한다고 적었다. 문화기획가로서 한 형식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인 동시에 천재다. 50년 전 그의 기획 철학은 지금도 그대로 현존 가치다. 소개한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시민의 삶을 전환하기 위한 문화기획, 새기고 전승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바야흐로 문화도시 전성시대이다. 정부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부천, 원주, 청주, 천안, 영도, 포항, 서귀포가 ‘1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김해를 비롯한 13개 예비도시들이 ‘2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구 6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41개 도시가 3기 예비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연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을 준비하는 도시가 벌써 30개 도시가 넘는다. 핀란드 청년 야코와 조앤나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결코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거대담론이 아니다. 밥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 소중한 가치를 투영시키는 일이다. 밥상공동체를 통해 음식을 나누고, 레시피와 음식에 얽힌 이야기로 소통하며, 바쁜 일상에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든 것이다. 조앤나의 칼리오 네트워크 또한, 그저 노래가 좋아 모였던 평범한 시민합창단이 예술성을 갖춰 세계를 제패하자, 멈추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주목하였으며, 헬싱키 원도심 칼리오 지역의 재생과 혁신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형식은

1937년 중일전쟁에서 버려진 고아, 부랑아, 아동을 위해 중국아동극장을 설립, 1953년에는 한국전쟁에서 버려진 전쟁고아와 학교 밖 아이들의 문화 예술교육을 위해 자유아동극장(自由兒童劇場)을 설립해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1953년 당시 그가 미군정에 제출한 자유아동극장 설립취지문을 보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문화가 지닌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음을 역설하여, 백범 김구의 문화부국론을 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 문화도시의 개념 역시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정의된다. 문화도시에서 문화란 단순히 예술의 확장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작동되는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도시에서 삶의 전환이란, 시민의 삶의 구체적 현상에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생각의 의식 속에 철학을 투영시켜주는 것이다. 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 이유이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곧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시와 공동체, 시민의 삶의 전환 곧 ‘탈근대적 도시와 삶’의 추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의 등장과 확장을 통한 주체의 형성 등 핵심 요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의 이해 위에 장소성과 지역화, 일상성과 시민력을 결합시키는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란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가 예술 및 문학 등의 분야를 넘어 우리 인간의 생활양식으로부터 함께 사는 방식, 사회상, 가치체계, 그리고 전통과 신념, 행동까지 매우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여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는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의 정의와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하며 또한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의제임을 천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도 물론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또한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임을 천명함으로써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화도시가 탈근대적인 삶을 추구하고,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화도시사업이 각 지역이 고유한 문화가치와 자산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업과 예산을 설계하고, 도시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문화분권형 정책이자 사업임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법정 문화도시를 비롯한 문화특화 지역조성사업, 문화적 재생사업 등 일련의 문화도시 사업은 어떠한 정책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은 이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문화도시 전범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도 마땅하다. 이는 현재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인 시민담론과 문화도시 추진 준비 등의 과정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도시를 문화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역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에서도 고백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도시 전성시대, 지정되면 더없이 좋을 일이다. 준비 과정만으로도 엄청난 시민과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손해 볼 일은 결코 없다.

김기석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새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

“옛이야기는 끝을 맺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 이야기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교수가 현시대를 진단하며 한 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이 취약계층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쳐, 이들을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 확대와 공공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출처=한겨레신문 2020. 5. 12.) 이런 상황에 ‘새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지역문화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새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경쟁의 미덕,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지원사업, 행정의 높은 벽, 가진 사람이 더 가질 가능성이 높은 문화생태계의 ‘마태 효과(Matthew Effect)’ 현상²⁾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은 저명한 연구자가 더 많은 혜택(지원금 등)을 가져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는 그렇지 못함으로써 점점 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두고 성경 마태복음의 구절을 빗대어 마태 효과라고 한다. (출처=위키백과) 등 지난 세기(世紀)를 지배해온 많은 것들에 종언을 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자란다고 한다. 이 도시에 누가 애정 어린 발자국을 남기고, 또 남겨갈지 생각해야 한다. 출현해야 할 ‘새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성장도 변화도 기대하긴 힘들다.

지역문화 그리고 문화도시

우리 사회에 지역문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지역문화 관련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문화정책 역시 중앙 중심으로 이해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높았다. 비교적 최근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인식적 개선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정책안에서 지역문화 주체(예술인, 기획자, 행정, 시민 등)에 대한 고민이 면밀하지 못하고 그중에서도 시민영역에 대한 정책적 인식 체계는 답보 상태로 보인다. 수혜의 대상,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존재. 이런 인식 기반에서는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일(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된다. 그리 이례적일 이유가 없음에도...

시대는 ‘새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를 통해 적실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 지난 12월,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정문화도시라는 구체적 상을 그려온 지 5년 만에 그 실질적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도시 지정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도시가 다른 정책 사업(가령 관광거점도시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사실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다

른 철학과 운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전이자 실험이기에 가시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문화도시를 볼 때 누락 없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간 소외되었거나 형식에 그쳤던 시민 참여와 시민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것이다. 도시가 무엇을 고민하고, 그것을 여러 주체들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한 시민의 변화와 성장 과정은 어떤지 하는 점들이다.

법정도시를 비롯해 예비도시 등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포항의 시민 자발적 커뮤니티 육성, 청주의 ‘10만인클럽’, 원주의 시민실천형 ‘원주테이블’, 부천의 ‘시민총회’ 등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지향하는 것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와 시민 문화권 확보다.

물론 이 과정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할지 단언하긴 힘들다. 다만 이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기에 소중한 희망과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문화도시의 시작

- 지역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문화도시가 도시가 가진 문화적 활동 형태를 진단하고, 시민의 실질적 참여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자 절차가 '지역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발견하고, 발굴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통상 기존의 지역조사 방식의 개선을 동반하게 된다. 부천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기초 자원조사 이후 각 분야별 세부 조사에서는 시민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은 대학생 중심의 '청년탐사단'을, 마을에는 '마을탐사단', 그리고 아동들의 시선으로 지역을 보는 '아동위원회 탐사활동' 등 시민들이 직접 지역을 돌아보고,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소한 상황까지 확인하게 됨은 물론 숨어있는 자원을 찾기도 한다. 지역의 소소한 생활 정보(스몰 데이터, Small Data)³⁾ 스몰데이터(Small Data)는 개인의 취향

이나 필요, 생활양식 등 사소한 행동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말한다. 개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정확한 추리를 해내는 명탐정 설록 홉스는 뛰어난 스몰데이터 분석가라고 할 수 있다. (출처=매경용어사전)가 차곡 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단 구성원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 사업을 설계하는 빅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스몰 데이터'도 중요하다. 집단의 공통적인 성향이 아닌 개개인의 삶의 패턴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랜 기간 도시를 고민하고 시민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의 큰 자산이 된다. 문화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비롯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통해 도시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찬찬히 조망하고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지금 할 것과 단계적으로 할 것을 구분하고 또 어떻게 추진할지를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시의 힘이 될 것이다. 문화도시는 지역을 찬찬히 다시 보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시민 참여의 정당성

지역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시대적 전환 시기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민'을 통해 나타난다. 행정 중심의 일방적 정책 구조가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조로 변하고 있고, 시민은 참여하고 향유하는 영역을 넘어 보다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활동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행정과 의회에 위임하는 대의제를 통한 정책 영향의 효능감(Efficacy)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참여형 협의 과정이 대구시민원탁회의이다. 숙의(熟議)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확산해 가고자 하는 의지와 도전인 것이다.

부천에서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회의(시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발굴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책임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물론 시민 참여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늘 제대로 작동하거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불균형적 참여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이 효용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 활동가들로 인해 결정이 편중될 우려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시민들과 함께 일상에서 도시를 살펴보고, 함께 의논하는



사진 1. 아동 권리를 알아가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는 아동 대상 시민 참여 프로그램 '아동위원회'(출처=부천문화재단)



사진 2.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자유로이 말하는 자리인 '시민회의'(출처=부천문화재단)

다양하고 다층적인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향유자, 참여자 등 제한적인 시민 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정책 과정과 결합하게 된다. 지역문화 주체의 실질적 일원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활동력은 더 높아지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스스로 지역문화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위상을 확보해 간다.

더불어 시민 주도형 사업이 설계될 때 양적인 면

도 고민해야 하지만,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기존 방식이 경제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위계 관계가 나타나는 공모와 지원이라는 단선적인 구조가 대부분이었다면, 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인 기반을 갖는 새로운 문화의 장에서는 시민, 예술가, 공공, 기획자가 공히 각자가 보유한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협력하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도 시민이 지역문화 주체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자기 완결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술인, 공공 등 다른 지역문화 주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위한 과제

각 도시는 도시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도시 전략을 마련한다. 도시의 특화된 콘텐츠를 찾고, 주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 이슈가 겹치면서 도시별 특성화 전략은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된 듯하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특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문화 주체의 자율, 분권, 협치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알아본다.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 전환

문화도시는 좁은 의미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넘어 도시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문화도시가 도시와 지구적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도시의 특화된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좋겠지만 억지스럽게 특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를 새롭게 혁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사업이다. 그렇기에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단기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시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들이 함께 그리는 합의된 문화도시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문화 협의의 구조 마련

다음은 지역문화 주체들 간의 공동 문화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습은 각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각 주체별(시민영역, 예술인영역 등) 협의의 구조가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통합 협의회 구조로 구성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실 거버넌스 구조는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관건이다. 거버넌스 주체들이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권한과 책임 구분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 시민 참여 장을 형성되 이 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간 지원기관의 역량이 동반 강화되어야 한다. 즉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 운영방식 개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다.’

어떤 것이 구현되는 것을 보면 그 시작과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진행해온 문화사업(지원사업 등)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성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문제조차도 관행이 되고, 이를 바꾸고자 하면 많은 에너지가 수반되기에 쉽지 않다. 그렇기에 작은 변화를 실제 구현하면서 성과를 같이 경험해야 한다.

사업 운영방식은 그간 진행되어 온 단선적이고 경합성을 유도하는 사업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사업은 그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프로그램 중심의 비교우위 선정 방식이 아닌 플랫폼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직접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주체 간 협력형 사업, 특정 주제별 기획사업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사업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해당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플랫폼에서 누적관리 되면서 아카이브(Archive) 기능으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사업 운영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진 3. 새로이 부천으로 전입해온 시민, 혹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활동가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시민환영 프로젝트'(출처=부천문화재단)



정보 교류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상호 정보의 부족에서 생기는 오해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 정보 및 지식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보 채널과 지식 공유 방식이 주로 결과 중심이었다면, 협치를 기반으로 한 소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채널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거주, 활동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맵핑(Mapping)도 지역문제나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네 카페에서 벌어지는 작은 음악회 소식이 공유되고 길거리 버스킹 정보 등이 하나둘 쌓일 수 있는, 누구나 게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서비스 체계도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의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 주체 간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시민, 기획자, 예술가를 비롯해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대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기획단계부터 실행과 성과를 나눌 수 있게 운영한다면 상호 간의 협력 지수를 높일 수 있다.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에 대한 협의와 사업연계 및 효과 제고 방안 실행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표의 구체적인 사안을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오며

지금은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넘어 지역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모색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시민을 비롯한 지역문화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형식화를 초래하거나, 지역 안에서도 여전히 위계화가 존재하는 이상한 지역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문화도시 가치를 잘 활용하여 기존의 문화정책의 중심점이었던 공공은 지원과 기반 조성의 역할을 하고, 실제 진행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새 이야기'는 이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책임도 만든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 문화권을 기초로 한 도시 생태계와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절차와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도시는 많은 낮شم을 경험하게 한다. 낮선 것에 대한 수용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지속적인 노출과 접촉을 통해 그 경험치가 쌓여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시민이 만들어갈 '새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경쟁과 보편 지원의 병행, 소유와 상관없는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도시, 도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도시를 고민하면서 '새 이야기'를 만들어 갈 행복복구를 기대해 본다.

이병민

문화자원을 토대로 발전한 해외 사례 연구

최근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자원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는데,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현상과 도심부 쇠퇴현상 등에 따라 구시가지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기존의 산업적 측면의 도시재생보다는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예술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국가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구도심의 낙후지역을 재활용하려는 경우도 있고, 대구와 같이 도시 내 산업유산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지역의 전통시장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강조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하다.

성매매 업소가 예술 공간으로,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

예를 들어, 창조도시로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의 코가네초(金町, こがねちょう)는 한때 유명한 성매매 거리였던 곳을 지역주민들과 요코하마시, 경찰 등이 손을 잡고 성매매 업소를 몰아내고, 그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면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2005년만 해도 260여 개에 달하는 성매매 점포가 많이 위치해 있었으나 그때부터 NPO와 주민, 경찰, 공무원이 같이 협력해서 코가네초 성매매 점포 철거 사업을 시작하였고, 요코하마시는 건물소

유자와 협의해서 천막 간판을 철거할 수 있게 교섭해서 관련된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코가네초 바자>이라는 미술 전시회를 열기까지 문화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왔으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예술가들을 초청해 규모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 공간에서는 인근 철로 밑에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주변 성매매 점포들의 내부를 개조하여 예술 레지던스와 전시공간으로 변화시켰으며, 미술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하였다. 현재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연계하여 현대미술을 통해 일본과 각국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일련의 사업들의 중심이 되는 단체는 NPO 법인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이다.

온 도시가 나서 실행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결과 2004~2017년 사이 지역 인구가 1천 200여 명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세 수입도 증가하였다.

사진 1. 고가하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코가네초 사례(출처=필자 촬영)



사진 2. 고가하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코가네초 사례(출처=필자 촬영)



**포르투갈 리스본의
핫 플레이스는 방직공장?
LX 팩토리**

포르투갈 리스본의 LX 팩토리(LX factory)의 경우는 산업유산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경우인데, 19세기 지은 방직 공장지대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X 팩토리는 1846년에 방직공장으로 시작되었으며, 1873년 포르투갈 실업가에 의해 공장 인근에 노동자 주택이 지어지면서 리스본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 단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직물 제조량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서 생산이 급속히 줄어든 공장단지는 점차 도심의 흉물처럼 방치되기 이른다. 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을 보수하는 방법에 대한 리스본 시의회의 계획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자, 2007년 공장을 매입한 부동산회사 메인사이드(MainSide)는 'LX 팩토리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해당 공장을 23,000 평방미터의 예술적 창조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LX 팩토리는 TV광고의 배경으로도 활용되며, 콘서트 및 연극, 미술전시 등 문화 콘텐츠들이 더해졌다. 오래된 산업화 시대 유산에 예술을 입혀 패션, 광고, 멀티미디어,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사진 등 전 방위적 예술 스튜디오가 가득한 창의적 산업의 예술 클러스터로 재탄생 되었다. 현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소름, 갤러리뿐만 아니라 무용학교, 그리고 여러 상점들과 카페나 레스토랑, 콘서트 홀, 호스텔 등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레바 데바가르(Ler Devagar. 천천히 읽기라는 뜻)' 복합서점은 기존 건축물을 적극 활용해 꾸민 독특한 실내 풍경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조형물 등을 이유로 LX팩토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장소다. 그 밖에도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산업적 분위기의 건축, 그래피티 장벽 등 여러 방문 포인트를 비롯하여 주말 벼룩시장, 뮤직 페스티벌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며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쇠락한 공장지대에 문화적 요소를 더해 다시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진 3.4. LX Factory와 복합서점 풍경(출처=필자 촬영)

**예술로 도시,
미국 산타페**

다른 사례로서 미국의 산타페(Santa Fe) 지역은 예술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주도 산타페는 해발고도 7,000피트(ft)의 고원 사막에 위치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스페인, 멕시코, 그리고 현대의 미국문화가 혼재되어있는 독특한 정취의 도시이다. 더구나 6,500명이 넘는 예술가가 거주하며 공예, 시각예술, 공연예술, 미디어아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랜 옛날 인디언들의 주거지였기 때문에 인디언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스페인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약 5만 명의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다. 인디언과 스페인 문화의 적절한 조화가 만들어낸 이국적인 분위기와 연중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 덕분에 산타페는 뉴멕시코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더욱이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있어 예술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어도비 스타일(Adobe Style)'이라는 독특한 예술 양식이 유명한데, 이는 햇빛이 강하고 강수량이 적은 기후에 맞춰 산타페에서 구하기 어려운 나무를 대신해 흙과 벽돌 위주로 건물을 지은 건축양식으로 건물 대부분이 이런 붉은색의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어 산타페의 이국적인 첫인상을 자아낸다.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 산타페에는 150개의 화랑과 8개의 박물관, 산타페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많은 문화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산타페

오페라(Santa Fe Opera)와 같은 굵직한 공연예술단체들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술 작품 전시뿐 아니라 스페인의 전통예술, 춤, 음악의 축제인 스페인 시장(Spanish Market), 수많은 인디언 미술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인디언 시장(Santa Fe Indian Market)과 같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유의 자연환경과 오랜 시간 뒤섞인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독특한 예술로 발전시킨 산타페는 지난 2005년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서 창의도시로 네트워킹에 가입하기도 했다.

산타페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캐니언 길을 따라 가면 약 250개에 달하는 갤러리가 늘어서 있는 광경을 만날 수 있다. 20세기 현대 미술을 이끌었던 작가들의 회화에서부터 조형물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대부분의 갤러리가 사진 촬영에 관대해 미술품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창조적 환경을 자랑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공예가들이라는 아티스트들이 집합되어 있는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에서 창조인력들이 밀집함으로써, 하나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보편적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창의성을 촉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5. 어도비 스타일의 건축물

**쇠퇴한 산업공간을 문화로 탈바꿈시킨,
캐나다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문화도시로 잘 알려진 캐나다 밴쿠버, 그 내에서도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는 도심지의 쇠퇴를 극복하고 복합 문화산업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밴쿠버 다운타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실제로는 펄스 강으로 튀어나온 반도)을 말한다. 1915년 밴쿠버 항의 급속한 발전으로 밴쿠버항구위원회는 펄스 강(False Creek) 지역을 매립, 공업지대를 형성하였고 그 규모는 142,000m² 정도로, 1930년대 이르면서 고용 인력이 1,200명에 달할 만큼 번성했다. 그러나 대공황 시기에 이르러 몇몇 제재소들이 문을 닫으며 이곳에 불법 점유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랜빌 아일랜드는 조금씩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잠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호황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중공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윽고 1970년대에는 인근 공장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든 공간으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쇠락한 도심과 공업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캐나다 연방 정부 주택청(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¹⁾우리나라의 LH공사와 유사의 총 계획 아래 1978년 연방정부와 밴쿠버시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낡은 공

장과 창고를 수리하여 상업시설, 문화시설, 교육 시설, 주거 등 복합용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행사와 각종 예술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생과정을 통해 그랜빌 아일랜드에는 해변을 둘러싼 산책로와 다양한 오락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박물관, 각종 상가와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섬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은 여러 식료품부터 볼거리가 가득해 특히 방문객의 인기가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뮤지컬, 연극, 영화, 전시, 스튜디오 등 각종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의 장소로 활용되며, 뿐만 아니라 극예술, 건축 교육, 음악 학교 등을 설립하여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밴쿠버 시민들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를 고려한 개발로 상업, 교육,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산업 공간으로 재탄생된 그랜빌 아일랜드는 더 이상 도시의 흉물스러운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향유 할 수 있는 밴쿠버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200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들르고 있다.



사진 6.7.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그랜빌 아일랜드(출처=필자 촬영)

도시는 발전하면서 많은 흔적을 남겨놓는다. 가령 과거에 다양한 이유로 세워졌던 도시의 유헤시설이라던가, 혹은 효율성이 다한 산업시설 같은 형태 등으로. 앞선 사례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시는 이러한 다양한 흔적들 위에 계속해서 문화요소를 더해 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유헤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기도 하고, 산업유산의 문화 자원화를 꾀하기도 하고, 일상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문화가 기반이 되는 도시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 철학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가치’와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무조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산업과 예술적인 생태성, 문화가 기반이 되는 전통의 복원과 공동체성의 창출, 미학성의 추구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도시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핵심적인 요소들의 강조, 모더니티(Modernity) 기반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인한 건조 환경의 난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의 집착과 함께 예산의 분배 논리에 따라 문화도시의 기본원칙과 달리 희소성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도시 정책의 벤치마킹 요소로 고려되어온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문화 활동 참여와 지속적 문화협력, 타 문화와 지역의 이질적 문화 간 교류의 촉진, 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 사업의 지향점과 수혜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복구의 경우에도 천재소설가 이태원을 기리는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등 가능한 문화자원이 많은데,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커뮤니티가 연결되고, 시민 담론이 일어나는 사회적 만남이 있는 장소를 만들어어나가는 것, 보통 사람들의 존재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존되는 도시, ‘그들’의 문화도시를 꿈꿔본다.

참고문헌

- 김연진 2009. 「유헤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pp. 185-207
- 남지현 2012.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 거점 만들기: 도쿄의 ‘빈 건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서울연구원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2017.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서울문화재단
- 성종상 2005.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화 전략연구」, 『문화정책논총』 7, pp. 105-41
- 송준민, 김소라, 남기범, 이병민, 2018. 「글로벌시대 동아시아 도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장소만들기 전략」, 『국제지역연구』 22(3), pp. 293-317
- Douglass, M. 2016. “Creative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economy - Insadong, chaebol urbanism and the local state in Seoul,” *Cities*, 56, pp. 148-155
- Xie, Philip Feifan 2015, *Industrial Heritage Tourism*, Channel View Publications

이선욱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본 지역의 관광 자원

핫 플레이스(Hot place)라는 말이 있다. 실제 영 어권에서도 주로 쓰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 래 들어서는 ‘핫플’이라고 줄여 부를 만큼 우리나라 에선 어느 정도 보편화 된 말이기도 하다. 소위 ‘인 기 있는 장소’를 이르는 말인데, 고전적인 의미의 ‘명소’보다는 대체로 인기 있는 카페나 식당 등 상 업적인 형태의 ‘유행’과 밀접한 경우가 더 많다. 아 래 인용한 기사 역시 이와 같은 핫 플레이스의 유행 과 무관하지 않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구 북구 고성동이 지역 내 새로운 외식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유산업 기업들이 머물렀던 폐건물이 음식점·카페로 재탄생 하면서다. 지역을 이끌어가던 산업이 쇠하면서 침체했 던 고성동이 최근 복고(Retro)에 새로움(New)이 더해 진 ‘뉴트로’로 활기를 띠자 북구청이 가세했다. 뉴트로 감성으로 살아나는 고성동의 분위기를 살려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 명소로 키워가겠다는 청사진을 그 린 것이다.

『폐건물, 음식점·카페로 재탄생...대구 고성동 ‘뉴트로’ 바람』, <경북일 보> 2020년 6월 19일 자 기사 발췌

핫 플레이스에 관심 있는 대구 사람이라면 기사 가 가리키는 고성동의 명소가 어디인지를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2018년 고성동에 문을 연 카페 겸 복 합문화공간 ‘빌리웍스’와 지난해 문을 연 ‘나인블럭 투가든’이 그 주인공이다.

공교롭게도 좁은 길목에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이들 공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카페와 식당 등의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미술, 음 악, 문학 등의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



사진 1. 빌리웍스(출처=필자 촬영)



사진 2. 나인블럭 투가든(출처=필자 촬영)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여기에 기존의 카페나 식당에 비 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공간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선보 이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된 요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두 공간 모두 기존의 ‘낡은’ 창고나 ‘오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이러한 공간 활용을 선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 활용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새로운(New) 복고(Retro)의 유행을 뜻하는 우리식 합성어 뉴트로(Newtro)다. 이는 최근 과거 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두 공간 모두 낡고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해석한 이 ‘뉴트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사는 이른바 뉴트로 콘셉트로 대변되는 이들 공간이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주목을 받자, 침체됐던 고성동이 최 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한산했 던 인근 골목은 이들 공간의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상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이제는 관할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을 방문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도 구체적이다. 이를 소개하고자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인용하기로 한다.

북구청은 지역 내 핵심 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고성동과 칠 성동 일대를 관광화하는 일명 ‘뉴트로 파크(Newtro Park) 조 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역에 흩어져있 는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해 북구만의 관광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사업 비 총 72억 1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린 북구청은 현재 북구에 남아 있는 근대 산업유산을 파악하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본 지역의 관광 자원

이선욱

산을 목록으로 정리한 후 구청에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는 곳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중략)… 근대 산업의 흔적들이 모두 파악되면 먼저 개발 가능성이 큰 근대 공장 매입과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북구 관광종합안내센터와 상업공간을 비롯해 복합 문화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 일명 ‘뉴트로 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폐건물, 음식점·카페로 재탄생…대구 고성동 ‘뉴트로’ 바람, 위와 동일 기사

기사에 언급된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10년간 북구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관광종합개발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 6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이 계획은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사업들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은 고성동과 칠성동 일대(넓게는 침산동 일대까지도 포함)의 도시 자원, 즉 낡고 오래된 근대 산업유산에 초점을 맞춘 관광 사업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 마치 최근 몇몇 핫 플레이스의 유행에 편승해 촉발된 사업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트로 바람’이라는 기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 핫 플레이스가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말 그대로 ‘뜨거운’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들 공간이 인기를 끌지 못했거나, 혹은 뉴트로라는 콘셉트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사업 역시 큰 주목을 끌기 어려웠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계획이란 본래 종합적인 관점이 투영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이 장기적인 관광 계획으로 점화될 수 있었던 데는 그보다 더 다양한 지역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공간들이 핫 플레이스로 자리할 수 있었던 배경들 역시 이들 요인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리라 추측된다. 핫 플레이스의 인기 역시 관광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역적 요인을 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근대 산업유산

그렇다면 최근 이 일대가 이처럼 관광 계획의 대상으로까지 주목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만 놓고 보면 우선 ‘뉴트로’라는 콘셉트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 일대에 새롭게 재해석할 복고적인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지역의 본격적인 관광 계획으로 시동을 건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 그중에서도 ‘근대 산업유산’이라는 ‘복고’의 재해석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사실 근대 산업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낯선 모습이 아니다. 가깝게는 군산, 인천 등의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의 주요 개항 도시, 나아가서는 유럽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도 각광 받은 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만



사진 3.4. 칠성동 인근의 근대 건축물(출처=필자 촬영)

큼 여러모로 검증된 관광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이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근대 산업유산의 수나 밀집도, 그리고 건축 규모 등의 측면에서 이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북구청에서 파악한 이 일대의 근대 산업유산(건축 유산)은 대략 10여 곳 내외.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숫자가 추가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소규모의 공장 혹은 창고 형태의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규모 근대유산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은 실제 소규모의 문화 관광 시설이나 상업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한 인근 ‘중구’의 근대유산 활용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중구의 근대유산들이 공장 등의 산업 시설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비

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유산들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그 숫자나 규모, 밀집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근대유산은 관광 자원으로서 이미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의 관광 자원이 일반적인 근대유산이 아닌, 이 지역의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일대의 가장 큰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 만약 이 사업이 가리키는 산업유산이 ‘근대’라는 범주를 넘어 그 이후 시기의 산업유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본 지역의 관광 자원



사진 5.6.7. 침산동 인근의 근대 건축물(출처=필자 촬영)

새롭게 재해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 일대의 ‘산업유산’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이후 대구를 본격적인 섬유 공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한 ‘제1공단’의 재조명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칠성동, 침산동, 원대동, 태평로3가 일대의 공업단지로부터 출발한 이 일대의 산업 역사는 1950년대 중반 침산동 일대(현 삼성창조캠퍼스)에 들어선 ‘제일모직’을 시작으로, 이후 1960년대 초 제일모직을 비롯해 ‘대한방직’, ‘무림제지’, ‘삼호방직’, ‘승리기계’ 등이 밀집돼 있는 이 일대를 ‘제1공단’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제1공단의 역사가 바로 이곳의 산업 역사인 셈이다. 이후 제1공단은 당대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부지의 포화로 ‘제3공단’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며 발전과 확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제1공단의 역사는 대구뿐 아니라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대구 산업화 출발지 제1공단 터의 재발견」, <영남일보> 2013년 10월 23일, 25일 자 기사 참조.

비록 1990년대 중반 제일모직이 구미로 이전하면서 제1공단의 역사도 함께 저물었지만, 그럼에도 제1공단이 위치했던 이곳이 여전히 국내 산업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제일모직을 모태로 한 ‘삼성’이나, 그보다 앞선 1930~1940년대부터 이 일대에서 기업의 모태가 된 사업을 시작한 ‘쌍용’, ‘대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통된 출발지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이 같은 역사를 마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2017년 제일모직 터에 문을 연 ‘삼성창조캠퍼스’는 제1공단의 중심지에서, 제1공단의 역사를 이어 다시 한번 오늘날 또 다른 산업을 새롭게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듬해 북구청에서는 ‘대구근대산업관광 아카이브 작업 & 콘텐츠 개발’이라는 용역을 통해 이 일대 근대 산업유산과 주요 기업들의 출발지로서 제1공단의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공교롭게도 이 관광 계획은 현재 정황상 우선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선욱

보인다.) 사실 현재까지 나타난 이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계획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역시나 ‘제1공단’이라는 이 지역의 산업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공단의 역사는 그만큼 이 일대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진 8. 1960년대 말 제일모직 대구공장(출처=삼성물산)

여기에, 앞서 언급한 고성동의 핫 플레이스들이 최근 상업 공간 이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재해석한 낡은 창고나 오래된 건축물 역시 “198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유산업 기업들이 머물렀던 폐건물이 음식점·카페로 재탄생”했다는 기사의 도입부(앞서 인용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제1공단의 역사와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도 있다. 우선 관광 자원의 측면으로만 보자면 현재 제1공단의 산업유산이란 ‘건축물’ 중심의 유산과는 거리가 멀다. 앞

서 국내외 산업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참고해보면 관광에 있어 건축물 중심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모직 터를 그대로 살린 ‘삼성창조캠퍼스’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이 일대에서 직접적인 건축물로서 눈길을 끄는 제1공단의 산업유산은 찾아보기 어렵



사진 9. 대구삼성창조캠퍼스(출처=대구삼성창조캠퍼스)

다. 최근 고성동의 핫 플레이스들처럼 리모델링할 수 있는 폐건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건축물 중심의 관광이라 부르기에는 그 수나 규모가 한정적이다.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이 적지 않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제1공단이 아닌, 실제 건축물로 이루어진 ‘근대’의 산업유산을 관광 대상으로 우선시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다시 말해 현재 제1공단의 산업유산은 직접적인 관광 자원이라기 보다는 관련 기록이나 물품 등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본 지역의 관광 자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관점의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이를 활용해 박물관부터 짓고 보자는 접근 방식이다.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유산이니 무조건 기려야 한다는 식의 관점인데, 4차 산업과 환경,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아울러 산업화 시기의 정치, 산업, 문화에 대해서도 그 성과와 반성의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1공단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언급한 ‘뉴트로’라는 관점을 빌리자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재해석’해야 할 것은 ‘유산’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유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복고적인 시선’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물론 제1공단과 같은 현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근대의 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사실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이 눈길을 끄는 진짜 이유도 이 후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모든 유산이 그러하지만, 특히 오늘날 ‘산업유산’이란 현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과 맞물린 채로 재해석돼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도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하는 주요 관광지들이 이를 기념비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의 가능성은 우선 이 일대 산업의 근현대사라는 ‘복고’를 어떤 관점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물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관점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산업유산이 지닌 관광 자원으로서의 문

제점도 여러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들 산업유산에만 국한된 보완만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관광 자원들의 가능성과 한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이나 고성동 일대의 핫 플레이스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성동 일대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했듯 이곳의 핫 플레이스들이 이 일대 관광 계획의 ‘뜨거운’ 불씨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데도 당연히 여러 도화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해 초 고성동에 개장한 ‘DGB대구은행파크’는 이 불씨를 당긴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라 할 수 있다. 프로축구팀 대구FC의 홈구장이기도 한 이곳은 최근 홈팀의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특유의 생동감 있는 구조로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축구 팬들이 인근에 위치한 고성동의 핫 플레이스와 일대의 상권을 찾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과도 같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일대가 스포츠팬들로 북적이는 것이 낯선 모습은 아니다. 2015년까지 바

로 옆에 위치했던 ‘대구시민구장’(현 사회인야구장)은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한 이래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1948년 대구운동장으로 개장한 이후 1962년 대구종합운동장으로 다시 준공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시민구장이라는 명소가 위치했음에도, 당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일대는 시민구장 외에 별다른 인상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복합스포츠타운의 개념으로도 운영되고 있지만, 역시나 DGB대구은행파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광 자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시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일대를 배경으로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이 연계 효과를 기대한 것도 엄밀히 말해 최근 축구의 인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0. DGB대구은행파크(출처=대구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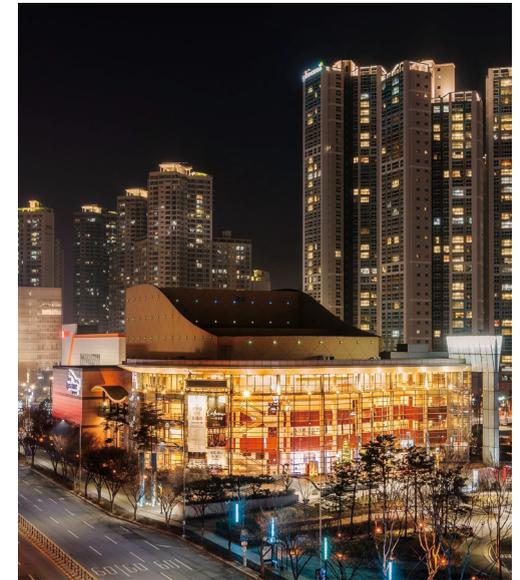


사진 11. 대구오페라하우스(출처=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한편으로 2003년 칠성동에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 역시 오페라, 뮤지컬 등의 대형 공연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대구국제오페라축제>나 <DIMF>를 통해서 전국 곳곳의 오페라, 뮤지컬 팬들을 방문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 공연 시설을 넘어 관광 명소로까지 자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근 시설들과의 관광벨트(觀光belt)를 형성하기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근래 들어 ‘삼성창조캠퍼스’와 DGB대구은행파크가 잇따라 문을 열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오페라하우스를 찾는 관객들은 여전히 이들 시설과의 내용적 연계보다는 관람을 위한 상업적 편의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유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DGB대구은행파크와 대구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이 일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동시에 이 일대를 주목하게 한 중요한 배경으로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또한 이 일대의 산업유산만큼이나 중요한 관광 자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반드시 관광 벨트처럼 묶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시설의 성격이나 방문객의 성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시설 모두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는 점은 분명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방문객들 가운데 이들 시설이 상징적인 ‘산업유산’의 토대와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오히려 그러한 사실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연관 검색 가능한 이 일대 핫 플레이스들의 메뉴나 포토존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이들 시설의 명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점은 특히 이 일대를 무대로 한 관광 계획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 두 시설과 산업유산이라는 역사가 연계할 지점을 찾는 일은 일면 필연적인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그것은 앞서 말했듯 오늘날의 여러 관점들로 재해석된 역사여야 한다. 인근 핫 플레이스들의 유행이나 상업적 활기를 넘어, 이들 방문객을 위한 보다 확장 가능한 관광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수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1공단의 대표 유산인 삼성창조캠퍼스가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관광 벨트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비단 이상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1997년 지역 최초의 홈플러스 1호점으로 문을 연 ‘홈플러스 칠성점’을 비롯해 2002년 오픈한 ‘이마트 칠성점’과 2017년 문을 연 ‘롯데마트 칠성점’ 등 대형마트 세 곳이 몰려 있는 독특한 입지 역시 최근 이 일대를 주목하게 한 또 하나의 배경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두 시설과는 다르게 이들 마트는 주로 지역의 시민들을 방문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민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1공단 등의 산업유산과 이 일대를 크게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심지어 1995년 고성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대구도시공사’나 2016년 새롭게 문을 연 ‘대구은행 제2본점’ 등 이곳에 자리한 주요 기업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들과 이 일대의 산업유산을 연관시키는 일도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비단 관광 자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인식 차원에서도 산업유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

사실 최근 이 일대의 핫 플레이스나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이들 상권의 주 고객, 그리고 앞서 언급한 스포츠나 오페라 관람객 혹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커다란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재 이 일대가 관광이나 문화 혹은 상업 지역이기 전에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거 단지임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종종 주거지라는 생활 문화와 관광 자원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거 단지와 관광 자원이 결합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도 ‘산업유산’이라는, 특히 주거와는 거리가 먼 공업 중심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은 여러모로 실험적인 측면이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실험만은 아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는 1995년 칠성동 삼성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매해 크고 작은 단지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양상이다. 그 시점이 묘하게 제일모직의 이전으로 제1공단의 역사가 마무리된 시점과 배턴 터치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과거 대규모 산업의 역사가 자리한 곳에 이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셈이다. 물론 이러한 아파트 단지 조성은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 주택가를 포함해, 몇 안 되는 이 일대의 근대 산업유산들도 언제 재개발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뉴트로 파크 조성사업은 관광 계획이기에 앞서 얼마 남지 않은 산업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고 해도 대규모 주거 단지 속에 둘러싸인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실험적이다. 특히나 산업유산을 주민들의 삶과 결합시키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이 사업은 더더욱 이 일대

산업의 근현대사를 어떤 관점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에 따라 이 사업은 무관심 속에 흘러갈 수도, 반대로 이에 관심을 가진 인근 주민들 스스로가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제1공단의 중심이었던 ‘삼성창조캠퍼스’를 휴식처 삼아 산책하는 인근 주민들을 볼 때마다 이 실험적인 사업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이들의 휴식에서도 이 일대 산업유산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 역시 마냥 구호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호다.

무엇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관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관광 계획을 통해 조성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해석될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최근 고성동 일대에 부는 일명 ‘뉴트로 바람’이 과연 이 지역의 어떤 면모까지 새롭게 재해석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7월, 우리의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생각을 듣고자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큰 대문을 지나 익숙한 둥근 돔의 국회의사당이 나타났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던 날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라 많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원실에 도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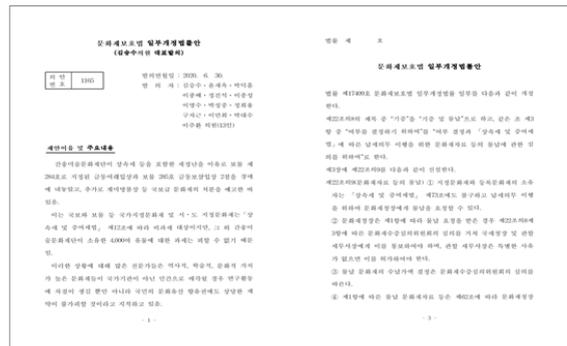
여 비서관과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다소 긴장한 마음을 풀고,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을 만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승수 의원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사진 1. 국회의사당(출처=행복북구문화재단 촬영)

Q1.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였다고 들었다. 해당 법률을 발의한 취지가 어떻게 되는가?



발췌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법안 본문

A1.
대구광역시 행정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간송미술관 활성화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였다. 간송 전형필(澗松 奎鏞, 1906 ~ 1962) 선생은 일제강점기 개인의 자산으로 귀중한 국가 문화유산들을 되찾아 지키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여곡절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들은 현재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이어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그 문화재들이 화두에 올랐는데, 이는 국보, 보물은 상속세 및 각종 세금이 면세이지만 그 외 재단이 소장한 많은 문화재가 이에 속하지 않아 문화재 보관·관리비용과 여타 세금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간송미술관의 일부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법률적으로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법 법률안”을 일부 개정, 문화재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에 문화재를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리하여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민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는 법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과거 민족혼이 담긴 예술품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수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Q2.

현재 지역 내 많은 문화·예술계 현안이 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A2.

주 52시간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받쳐 줄 생활문화, 생활체육

을 즐길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은 거주인구에 비해서도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다. 기존 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은 물론, 서변동의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하여 다목적 체육센터 등 계속해서 지역 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시설 및 여가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 사이에서도 문화향유 경험이나 이용 정도가 일부 편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관한 고민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계속해 왔었다. 앞서 말한 좋은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로 주민을 이끄

는 선행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민과 현실 상황을 고려한 개선방안으로 '길거리 공연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생업현장과 같은 일상에서도 누구든지 문화생활을 바로 즐길 수 있게끔 길거리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화생활이라 하면 클래식 공연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중 공연 등을 활성화하여 많은 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북구 전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부분은 문화예술 인재의 중요성이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속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힘든 분야는 바로 문화예술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인간 고유성이 짙은 문화예술 산업 분야가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 분야의 인재를 찾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재능을 알아챌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많은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또 다른 인재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들은 비단 법적인 제도만으로 만들 수 없다. 일선에서 전문가들의 뛰어난 창조성과 행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과 함께 문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Q3.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에 큰 위기가 도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A3.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같은 예술현장에서는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바이러스의 유행에 완벽한 대응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든 시기지만,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예술, 관광 분야임을 다시금 깨닫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명문화된 예방수칙을 세우고, 위기에 놓여있는 예술인에게 맞는 재난지원체제를 만들어 다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결국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향유하는 모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다.

사진 2. 김승수 국회의원(출처=행복북구문화재단 촬영)



Q4.

공약 내 각종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4.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25만 명 이상의(북구민의 57%)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강북지역에는 구수산도서관, 태전도서관 단 두 곳뿐이다. 물론 우리 지역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어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지만 많은 주민들을 수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태조야동(서변동)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추진 중이고, 올 하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후 크고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북구의 도서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 도서관 포럼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의 실태나 관련 정책에 대해 여러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근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에 단순 도서관 시설 확충을 넘어서서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령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시청각 매체 등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장소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생각이다.

Q5.

또 다른 공약으로 “금호강 수변관광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다. 이는 무엇이며, 세부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A5.

우리나라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외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에 금호강은 수량이나 위치, 주변 시설을 봤을 때 수변 관광을 개발 시키기에는 안성맞춤으로 생각된다.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천 프로젝트”의 경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비해 “금호강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호강은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가는 지역 통행의 요지였으며, 자연스럽게 강을 따라 다양한 문화도 유입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북구지역은 금호강으로부터 신천, 팔거천, 동화천 등 마치 핏줄처럼 지역을 적시는 천(川)들이 뻗어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으로 유서 깊은 역사자원도 지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호강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금호강 수변·문화·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금호강은 도심을 흐르는 강 중에서도 유독 경치가 빼어나 옛사람들이 많은 누정(樓亭)을 지어놓고 자연을 즐기며 학문을 논했다고 기록으로도 전해지며, 조선 시대 서거정이 대구 10경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금호범주(琴湖泛舟 금호강에 배 띄우기)’처럼 배를 타고 경치를 감상하며 문학을 집필하던 선유(仙遊)문화와 같은 선조들의 전통을 잇는 것도 의미가 깊을 듯하다. 가령 곤돌라나 수상택시가 오가는 뱃



사진 3. 금호강(출처=행복한 우리북구 전국폰카사진공모전 당선작)

길을 조성하거나, 강변을 따라 리버워크를 잇는 형태로 말이다. 이미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찾는 금호강 가운데 섬, ‘하중도’ 명소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금호강 바람소리길’ 같은 축제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금호강 지점마다 연결하는 나루터, 교량을 건설하여 금호강의 수상·수변 문화를 중심으로 북구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광·문화도시로서 지역의 변모를 기대해본다.

Q6.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상당함이 느껴진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앞으로 변화할 지역의 문화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달라.

A6.

문화예술의 영향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문화에 대한 사고와 시선을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변곡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오래된 옛 성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광코스가 참 인상적이었다.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기존에는 더 좋은 시설과 그 안의 공연 전시와 같은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지역만의 가치와 자원으로 특색 있게 그려내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물론, 전후의 내용은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 중요하다. 앞서 말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금호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현대에 들어서 생겨난 다양한 시설을 엮어 복구 전체를 하나의 문화지대로 그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당시 영국의 문화적 분위기와 환경 덕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환경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매사 노력하겠다.



사진 4. 김승수 국회의원(출처=행복북구문화재단 촬영)

인터뷰어 이현정
정리 및 사진 이주현, 정연규

감염병이 바꿔 놓은 시대



The Artist is Present

1. 예술이란 무엇인가?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이뤄진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의 <예술가가 존재한다> 장면

사진 1.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가가 존재한다> 장면



ic)의 <예술가가 존재한다(The Artist is Present)>는 평론가들에 의해 뉴밀레니엄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작업에서 아브라모비치는 넓은 홀에 의자 2개를 놓고 예술가 본인과 희망하는 관객 한 명이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둘레에는 그들을 보는 일반 관객들로 가득했다. 퍼포먼스는 간단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브라모비치는 명상에 빠진 듯 관객을 바라보았고, 관객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자 관객들은 자기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런 퍼포먼스는 3개월간 73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찾은 관객들은 뉴욕 전체 인구보다 많은 850만 명에 달했다. 평론가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당시 뉴욕 사람들 대개는 911 테러의 상흔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아브라모비치는 그 상흔의 내면을 이끌어 낸 것이다. 동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삶의 좌절과 아픔, 또는 인간 본질을 생으로 드러내는 경험을 준 것이다. 2014년 아브라모비치와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이 그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길지만 본문 그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모비치=거기 온 사람 중에서 78명은 제 앞에 21번 이상 앉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달 저녁을 먹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여인과 아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인데 아기 머리를 포대기로 꼭 감싸놓았던군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프고 아픈 고통이요. 제 안에서 깊은 슬픔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아기 머리를 덮은 포대기를 건어 딸 아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아기 머리에 기다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그런 슬픔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모마(뉴욕현대미술관)에서 제 앞에 앉았던 분들의 사진을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녀와 아기 사진도 있었죠. 그녀도 봤나 봅니다. 제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우리 딸은 8개월이었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었고요. 그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항암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곧 죽는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그녀는 병원에서 나와 그날 아침 미술관으로 온 거였어요. 그냥 제 앞에 앉으려고요. 그 어린 아기는 죽었습니다. 올해 그 아기 엄마를 제 다큐멘터리 상영장에서 만났는데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¹⁾

¹⁾「문명, 그 길을 묻다-세계지성과의 대화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경향신문> 2014년 4월 21일 자 기사 발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예술론 1장에 거론되는 모방론부터 요즘 많이 거론되는 치료의 기능까지 끝도 없다. 그러나 예술이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웅변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앞에 예를 든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다. 예술은 비일상적인 행위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새로운 희망의 힘을 얻는 것이다. 때로는 그 순간, 아프고 힘이 들어도,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예술을 통하여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²⁾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의 원래 대사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이다. 직역했다면 “결국,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일 텐데, 한국어 번역이 더욱더 작품에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경우다.

2. 기술에서 예술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Springfield) 철학과 교수인 래리 샤이너(Larry E. Shiner)는 예술이라는 개념의 변화사를 연구하면서 그 본질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말한다. 그는 국내 번역된 『순수예술의 발명』에서 전통시대에 말하던 예술과 현대에 말하는 예술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본래 예술이란 라틴어의 ‘아르스(Ars)’와 그리스어의 ‘테크네(Techne)’였다. 2천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 용어는 시 쓰기는 물론 말 조련, 구두 제작, 통치술까지를 두루 포괄했다. 인간의 기술은 모두 예술이었던 것이다. ‘예술’의 반대말은 그저 ‘자연’일 뿐이었다.

그랬던 예술의 개념이 18세기에 분리된다. 실용적으로 봉사하는 예술이 작품 자체의 정제미를 보고 즐기는 순수예술에 본래 자리를 내주고 만 것이다. 그 후, 기술에서 쪼개져 나온 순수예술은 시, 회화, 조각, 음악, 건축 등 새로운 범주만을 의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술인 수공예, 대중예술 등은 서민의 영역으로 밀어내 버렸다. 저자가 순수예술을 ‘발명’으로 간주한 이유다. 이제 예술은 인간사의 모든 실용적 기능과 무관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됐다. 사회 속에 존재는 하되 별도의 자율적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예술이라는 용어의 성격과 범주가 달라지면서 그 행위자들도 분리되고 차별됐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가’와 ‘장인’은 사실상 같은 말이었다. ‘예술’이라는 본래 의미가 사실상 동일했던 것처럼. 그런데 18세기를 계기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해야 비로소 예술가였다. 말을 조련하고, 구두를 만들고, 시계를 제작하는 이는 그저 장인으로 불릴 뿐이었다. 용어의 분리이자 차별인 것이다.

예술가가 기술자로서 하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모차르트의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1781년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일부본이다.

“낮 12시가 되어 식당에 갔어요. 시종 두 명과 각하의 수행원 몇 명, 그리고 요리사들과 나도 끼었죠…… 그런데 시종드는 녀석 둘과 요리사 녀석들이 식탁 상석에 앉는 거예요. 적어도 요리사 녀석들보다는 제가 상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도 아시죠?”³⁾
폴 맥가(Paul McGarr), <모차르트 - 혁명의 서곡>, p.92



그림 1. 어린 모차르트가 살롱에서 하프시코드(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왼쪽 어두운 부분)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차르트가 대주교와 함께 연주 여행을 할 때, 방금까지는 대주교 및 귀족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음악 지휘를 했지만 결국 식사할 때는 시종, 수행원, 요리사들과 함께 별도의 식사 공간으로 가야 했으며, 그곳에서는 시종과 요리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 당시 음악가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기술자이며 하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하인 취급을 견디다 못한 모차르트는 1781년 6월 찰

츠부르크(Salzburg)를 떠나 비엔나(Wien)로 간다. 하인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모차르트의 선택은 당시 유행하기 시작 하였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계몽주의 사상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사상으로서 볼테르(Voltaire),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등이 유명하다. 그 내용이나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세 종교적 억압 혹은 절

대군주의 권위로부터 인간 고유의 가치와 권리 혹은 합리성에 더욱 무게를 둔 사상이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유럽 전역을 음악 여행하면서 살롱(Salon)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당대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에 자신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대주교나 귀족들의 억압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비엔나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연주나 악보 판매 등을 통한, 소위 말하면, 프리랜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각성⁴⁾ 계몽사상을 영어로는 Enlightenment, 독일어로는 Aufklärung, 불어로는 Lumières라고 쓴다. 이는 문자 그대로 '밝게 만들'이나 '빛'을 의미하는 낱말들이다. 즉 깨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유인으로 자신의 예술을 시작하였다. 즉 귀족을 위하여 작곡하는 하인, 연주하는 기술자에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판매하는 자신만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래리 샐러 교수가 말한 '순수예술의 발명'이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예술의 자율성' 혹은 '근대성'이다. 그렇게 예술은 기술에서 독립했으며, 동시에 후원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3. 예술은 세졌으나, 예술가는 약해졌다.

그렇게 독립한 예술은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서 '미적인 영역은 도덕이나 학문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인

정되었으며,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에 이르러서는 '예술은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정신이 감각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는 상찬(賞讚)을 받았다. 과거 하인이거나 천박한 자들의 짓거리나 기술에 불과하였던 것이 세상의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때문에 낭만주의 시절 예술인들의 모든 광기 어린 행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감을 표출하는 영험한 행위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예술의 독립적 권위와 자유로 인하여 예술인은 힘들고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왕이나 귀족, 혹은 부르주아(Bourgeois)의 후원이나 지원이 끊어지고, 대신 대중의 선택에 의해서만 경제적 기반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술가들의 숙명적인 가난의 시절이 열린 것이다. 물론 그 대가로 자유롭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형식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술가들의 이런 고난은 전쟁과 감염병에 더욱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Egon Schiele)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독하게 가난했던 실레는 그 작품의 선정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비난과 모멸을 받아야 했다. 그래도 자신의 화풍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혼을 불태운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마침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잠시, 그는 임신 6개월의 아내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고, 그도 사흘 뒤 사망하게 된다. 그가 죽음을 앞둔 아내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명 <가족>에는 아직 태어나

지도 않은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난과 감염병은 그런 예술인의 소박한 소망을 어김없이 빼앗아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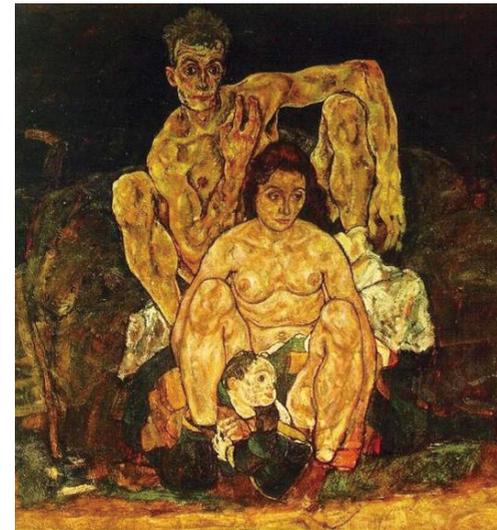


그림 2. 에곤 실레가 죽기 직전 그린 가족(앞에 어린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임신 6개월로 아내의 배 속에 있었다.)

감염병은 또한 수많은 예술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어둡고 불길한 화풍은 어머니와 누나를 결핵으로 잃은 경험에서 기인한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역시 아내를 폐렴으로 잃은 슬픔을 작품으로 남겼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이 결핵으로 죽어갔듯이 결핵 역시 수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의 비올레타, <라 보엠(La Bohème)>의 미미가 피를 토하며 죽는 병도 모두 결핵이다. 결핵은 이 외 소설 『죄와 벌(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등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잔인하게 예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연과 전시가 멈추고, 예술가와 대중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예술 행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공연·전시로 진행되었다. 최근 일부 부분적으로 해빙의 기미는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우선 공연장과 전시장이라는 밀폐 공간이 주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예술 소비자들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 약이 개발된다 한들 지속적인 변종이 생겨날 것과 이번 코로나와 전혀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예술을 통한 '예술가-소비자' 소통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흔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중세 흑사병의 예를 들면서 새로운 문예 부흥이 올 수도 있다는 등의 전망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설사 또 다른 차원의 문예 부흥이 오더라도(그런 것이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기간 중에 예술인들이 거의 사라지거나 타 분야로 전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누구는 이 기간 중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예술가는 존재하겠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감염병이라는 재난을 만난 예술인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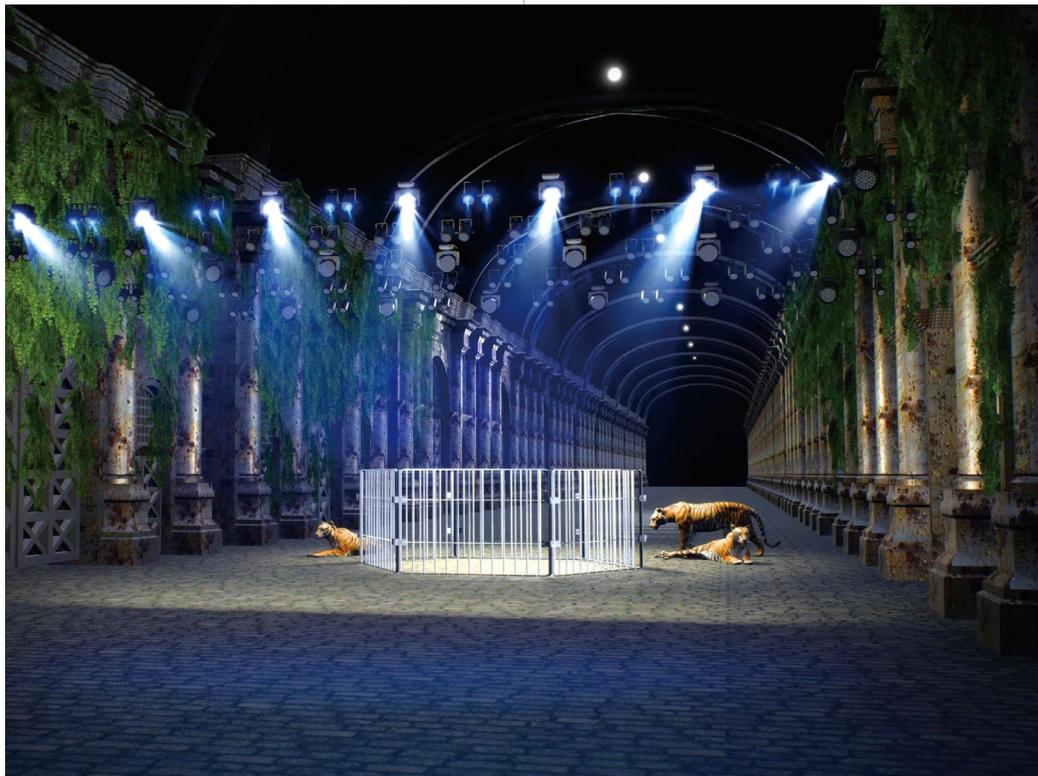
4. 과연 기술의 시대로 가는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 시대를 맞이하여 공연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공연이 붓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연이 계획되어 있던 것을 무관중으로 진행한 뒤, 유튜브 등에 올리는 형식이지만, 일부 공연은 아예 비대면 공연으로 기획되고 준비된 공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자면, 지난 4월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이 게임 사이트인 포트

나이트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무려 1,230만 명이 접속하였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트래비스 스캇의 아바타를 포함하여 전부가 VR이었고, 이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관객들만이 실재였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SM이 제작한 <비온드 라이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VR을 이용한 탈극장의 콘서트로서 유료라는 점이 특별하다. 비온드 라이브는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흥행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의 흥행과 존재 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다. 그

사진 2. <비온드 라이브>무대, AR로 만들어진 호랑이 모습



러면서도 일반적인 콘서트보다 훨씬 다양한 미장센(Mise en Scène)이 등장한다. 홀로그램과 VR 세트가 등장하고,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한 대소도구와 가공의 인물·동물, 그리고 특수 효과 등도 나타난다. 콘서트지만 영화적 형식과 라이브 공연이 혼합된다. 그야말로 실재와 이미지, 원본과 복제본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전통적인 공연 형식을 파괴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탄생한 것이다.⁵⁾ 이러한 공연의 형식을 아직은 특정할 수 없지만, 매체공연학자 필립 아우슬랜더(Philip Auslander)는 「라이브니스(Liveness)」에서 '매개된 공연(Mediatized Performance)'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공연 상황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시뮬라크르(Simulacres)의 개념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공연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라크르의 세상이 되었다. 원본과 복제가 혼재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된 포스트 트루스(Post-Trues)의 세상. 디지털 영상기술 발전은 공연의 존재론, 라이브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⁶⁾ 조복행, 위 3개의 문단은, <http://www.thep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9> 에서 발췌 요약 및 재정리.

언뜻 보면 다시 예술과 기술이 하나가 된 듯 여겨진다. 그 옛날 '순수예술의 발명'이 있기 이전 시대로 간 듯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중세 유럽의 기술과 예술이 하나였을 때는 가내 수공업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기술과 예술이 통합된 비대면 공연은 블록버스터급이다. 라이브 공연의 효시라 할 수 있는 <MET LIVE in HD>의 경우, 하나의 오페라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120만 달러(약 14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는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 서울 예술

의 전당에서 하는 <SAC on Screen>의 경우도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에서 자체 스태프를 활용하여 약 3,000만 원 정도 투입되기도 한다) 네이버와 SM이 만드는 <비온드 라이브>의 제작 경비는 알 수 없으나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일반 대다수 공연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의 경우에는 유료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기꺼이 관람하겠지만, 무명 혹은 일반 순수 예술인들의 공연을 유료로 접속하여 관람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르적 특성도 있다. 같은 공연예술이라 하더라도 콘서트형 공연은 음악이 주된 전략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연극형 공연의 경우에는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인터넷 기반에 관객이 몰입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NT Live로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의 <햄릿(Hamlet)>을 우리나라 극장에서 관람한 관객의 솔직한 평 '정통연극은 좀 지루한 면이 있다'며 다음 관람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⁷⁾ 부산문화회관 관람후기, <https://blog.naver.com/lim-story78/221984873835> 그러나 이 관객의 경우도 연극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 즉 배우와 현장에서 서로 바라보며 진짜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며 연기의 열정을 느끼는 현존감을 받았다면, 과연 '지루하다'고 말할까? 더구나 세계적인 명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 아닌가?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대다수 보통 예술인들에게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

면 공연은 보완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대체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코로나19 정국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예술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근본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5. 페스트에 임하는 몇 가지 인간 유형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알베르트 카뮈(Albert Camus)는 이미 감염병에 임하는 여러 유형의 인물상을 소설 『페스트(La Peste)』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물론 여기서 감염병은 전쟁이라는 부조리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여 이를 단서로 하여 감염병이라는 재난 앞에 우리 예술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작품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휩쓰는 가운데 고립되어 버린 도시에서는 재앙에 대응하는 이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이 묘사된다. 첫째는, 이 도시의 이러한 사태가 '이 고장 사람이 아닌'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기자 랑베르의 '도피적' 태도이다. 둘째는,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어 해석하려는 파늘루 신부의 '초월적' 태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이 작품의 주요 주제인 '반항'이다. 토박이도 아니면서 마을에 머무는 미지의 인물 '타루'는 의사 리유를 찾아가 페스트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건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유는 타루에게 동의하고 페스트, 즉 질병

과 죽음에 맞서 싸우며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며 투쟁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46222&cid=41773&categoryId=65745>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인물들은 예심판사 오통의 어린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지켜본 후 하나로 모아진다. 도피적 태도를 취하던 랑베르는 정작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떠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페스트와 싸우겠노라 선언하고 오랑에 남는다. 초월적 태도를 취하던 파늘루 신부 역시 페스트는 신의 징벌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보건대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맹렬하게 페스트와 싸운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취할 태도 역시 위와 같다. 방관하고 도피하는 것도 안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허황한 이론이나 관념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법, 어떤 내용이든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싸우자는 것은 투쟁과 타도 등의 이념적 선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격렬하게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예술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또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대답이다. 카뮈가 추구한 실존적인 질문, '부정을 통한 긍정'의 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라는 존재이다. 사실 예술이 있어서 예술가가 만들어지는지, 예술가가 있어서 예술이 창조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말한 것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술가라는 존재가 예술이라는 본질을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예술가가 존재하는 한, 예술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기에 예술가가 소중한 것이다. 그들은 충분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글 첫머리에 언급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 <예술가가 존재한다(The Artist is Present)>를 다시 생각해보자. 말없이 지켜보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런데 어떻게 뉴욕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전시장에 찾아와서 그녀와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그녀가 침묵으로 웅변한 '예술가가 존재한다(The Artist is Present)'라는 외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실존적으로 말하자면, 예술가의 존재, 그 자체가 답이다.

그렇다. 예술가가 있는 한, 예술은 있고, 예술이 있는 한, 내일은 있다.

임학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분야의 활동과 정책평가

1. 코로나19,

예술의 위기와 예술의 존재

2020년 1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는 예술의 활동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예술 활동 체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 무대라는 공간, 총체적 아우라 기반의 진정성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막았고, 공간을 닫게 했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예술 플랫폼 체계는 아직 예술의 진정성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주의'(1월 20일), '경계'(1월 27일), '심각'(2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5월 6일)로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예술계의 불안감과 위기감 또한 커져 갔다. 공연 단체들은 중단, 연기, 기대, 연습, 취소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쳐갔다.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창출되지 못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월~6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전시 매출 피해액은 총 1,489억 원(공연 823억 원, 시각 666억 원)에 이른다.

예술가들은 공연 활동, 전시 활동, 문화예술교육 활동, 예술 이벤트와 예술 축제 활동 등 면대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지속 되면서 예술가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은 커져 갔다. 예술인들의 수입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뜰이나 소득 문제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

게 코로나19는 치명타를 날렸다. 코로나19가 예술계의 허약한 부분을 들춰낸 것이다. 급기야 무대 대신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 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술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면대면 공간이 닫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연구, 연습, 워크숍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언택트(Untact) 환경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예술단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초기에는 국공립 예술단체와 예술기관에서 온라인 예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민간 예술단체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술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무엇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있다.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19를 예술 관점에서 접근할 때, 피해의 측면뿐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닫힌 문화 공간,

꼭 닫아야 하는가?

예술창작자 측면에서 가장 답답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문화공간의 문이 닫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립과 공립 문화시설은 모두 일률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공립 문화공간은 국민들의 문화공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공간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공간은 감염병에 취약한 공간이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경우 공립 문화시설이 예술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립 문화시설이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예술 활동을 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공립 문화공간을 열고 닫는 의사결정이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들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창작 준비, 연습, 발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직접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운영 업무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체 문화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시

민들과의 상호 작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예술 활동 공간 이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온라인 예술 콘텐츠 창작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춘 스튜디오가 필요한데, 예술단체들이 이러한 디지털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민간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방역 지원, 운영 지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방역을 갖춘 안전한 환경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재단의 존재감 :

위기 인식과 대응 체계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주의'단계, 1월 27일 '경계'단계 상황일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에서는 긴급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뒤흔들 만큼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월과 2월이란 시점이 한 해 문화예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 사업의 관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월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은 공연예술 현장에서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2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지역문화재단 또한 위기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공 문화 지원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장 적실성이 높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위기대응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한 지역문화재단도 있고, 운영하지 않은 지역문화재단도 있다. 지역문화재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과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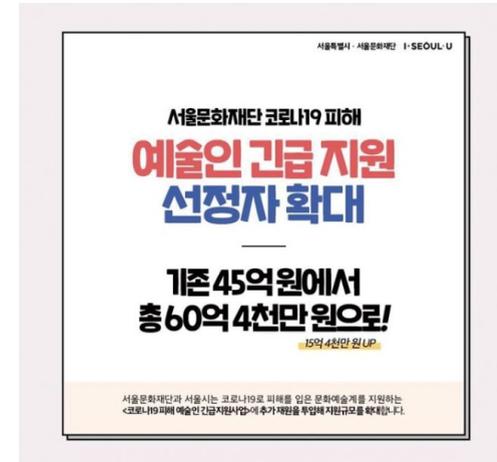


사진 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사업 포스터(출처=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2020년 4월 초부터 광역문화재단의 긴급 대응 전략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은 4월 5일에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한 4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13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에 10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코로나 피해지원 TFT를 신설하여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들은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움직임은 코로나19라는 지역문화 위기 상황에서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존재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미약하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훨씬 더 정책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의 적실성을 높여야 한다. 기존의 공모 중심의 지원 체계, 완성품 기반의 정산 체계, 양적 지표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수월성 중심의 지원 기준 등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역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적이고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성의 틀을 깰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와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신규 사업 수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회에 대해 설득, 협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재단의 기본자산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사용하여 긴급 재원을 마련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TFT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구 문화재단들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이 어떤 과정과 체계로 대응 방안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문화 관련 조례, 지역문화재단 정관 등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다 긴급하고 유연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어떠한 소통과 협의 방식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고,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데이터 기반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해야

지역문화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변경, 취소, 조정 등을 수행해 왔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TFT 운영, 긴급 대응 전략 수립, 발표, 추진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가 어떠하며, 조사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 수준에 머무른 채 문화예술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역문화예술인에 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현장을 담아낼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의 영향에 관한 조사를 조직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 영역은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 공간, 시민들의 문화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술인 영역의 경우,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소득, 고용, 생계 위협, 공연 취소 및 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 수준 등의 내용이 주요 조사 항목으로 설정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예술 활동, 수입, 고용, 생존 위협, 공연 취소 및 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 수준 등이 주요 조사항목으로 설정될 수 있다. 문화공간의 경우, 개관 여부, 방역 실태, 창작 공간 활용도, 피해 규모 등이 주요 조사항목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조사는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친 영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 전체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 예술시장, 예술인의 생활 안 전망 등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 될 필요가 있다.

5. 회복과 전환 :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지역문화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정책 사업을 변경하고, 새로운 지원 정책 사업을 개발하였다.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예술 행사와 예술 축제 등 면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원사업들은 중단, 연기, 대체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들은 공간 취소에 따른 손실금 발생, 예술 활동 중단, 연습 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예술가의 수입 또한 대폭 낮아졌다. 지역문화재단은 손실금 지원, 공간 임대료 지원, 선금금 지원, 대체 예술 활동 인정 등을 통하여 예술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언택트 환경에서 연구 활동, 역량 강화 활동 등의 대체 예술 활동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로 하여금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이 중단되고, 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용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상담실, 예술인 파견사업, 예술가 인턴사업 등 기존의 예술인 복지 및 창작 지원사업들이 중요한 대응 정책으

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예술가의 사회적 안전망과 생계 문제가 예술정책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한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 지원사업은 사후 지원사업으로 예술인들의 작품 판매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입한 작품의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활동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 대응 전략 중에는 예술 분야 아이디어 및 기획 활동 지원, 예술인 문화기획 활동 긴급 지원, 문화예술교육 아이디어 및 연구 활동 지원, 예술 배너 프로젝트 등 공공 예술 지원사업, 크라우드 펀딩 자원 조성 지원 등 창작 완성품보다는 사전에 창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예술 활동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사전 지원사업은 그동안 주로 완성품(Product) 중심의 지원체계와는 달리, 예술의 가치 창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예술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 지원 방식은 미래 창작을 위해 조사연구, 워크숍 등 창작 준비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예술 지원정책의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예술가의 활동 영역 또한 예술 창작자로서뿐 아니라 연구자, 기록자, 협력자, 삶의 파트너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문체부, 지역문화재단들은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20년에 초점을 둔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며, 2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문화예술 영역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여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분야이며, 그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대를 떠난 예술가들이 무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심리적 회복, 생계 안정, 예술 창작 준비 등이 해결 되어야 한다. 언택트 환경에서 시도되었던 온라인 예술 콘텐츠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나 지원체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 온라인 예술콘텐츠 지원 : 우려와 기대

코로나19 위기는 언택트 환경에서 예술 창작과 소비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예술 현장에서 국공립 예술조직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뉴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공연·전시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면대면, 오프라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왔던 순수 예술 분야의 관점에서는 다소 낮은 풍경이었다. 상업성이 높은 콘텐츠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에는 뉴미디어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이 콘텐츠 비즈니스의 중요한 모델로 정립되고 있지만, 순수 예술의 경우에는 온라인 미디어보다는 오프라인 무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사진 2. 행복북구문화재단 온라인 스트리밍공연 <잠시 놀다가 SHOW> 촬영현장



또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에서 사람들은 집과 개인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뉴미디어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예술 콘텐츠 사례가 늘어났다. 시각예술의 경우, 온라인 전시 생중계, 전시 감상 프로그램, VR 전시 투어, 미술 축제의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공연의 경우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유튜브 공연 실황 서비스 등 디지털 콘서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예술 소비자들의 반응과 수익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순수 예술의 경우, 상업성이 높은 콘텐츠 산업 분야와는 달리 디지털 소비자가 아직 많지 않으며,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되는 예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은 디지털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미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대두하고 있으며, 상호작용, 몰입, 현존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초보 디지털 예술 콘텐츠에 대해서도 높은 질적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온라인 예술 콘텐츠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온라인 가상공간을 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

인 예술 콘텐츠에 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순수 예술 분야의 경우, 아직 온라인 예술 콘텐츠 동영상 플랫폼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예술계의 디지털 역량이 낮고,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경우, 자칫 예술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예술 콘텐츠는 또 하나의 예술 창작 활동임에도 기존의 공연 상황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송출한다는 단선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이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예술 콘텐츠 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술성을 담아내는 영상기술과 장비 인프라 구축, 융합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저작권 및 지적재산 관리체계, 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 플랫폼의 연계체계 구축 등 온라인 예술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 소비자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 역량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 문제 또한 중요한 우려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술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과 기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사회를 가상

화(Virtualization), 지능화(Intelligence), 초연결(Connectivity)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예술 실험, 새로운 예술 경험, 새로운 예술 플랫폼 등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라인 예술 콘텐츠는 디지털 원주민들을 새로운 예술 소비자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온라인 예술 콘텐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계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디지털 예술 콘텐츠의 가치 창조체계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예술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예술 콘텐츠 창작 및 마케팅 지원, 예술과 기술의 융합 기반 조성, 저작권 및 지적재산 관리체계,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태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사 이래 인간의 재앙적인 역병은 대부분 전염되는 감염병이었고, 역병은 인류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항상 함께 해왔다. 문명화로 도시가 성립되고 교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그곳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퍼져나갔다. 천연두(Smallpox), 페스트(Plague), 말라리아(Malaria), 결핵(Tuberculosis), 인플루엔자(Influenza), 발진티푸스(Epidemic Typhus), 콜레라(Cholera), 황열(Yellow Fever Virus), 사스(SARS), 그리고 코로나19(COVID-19)가 그러하다.

오랫동안 역병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물과 공기, 토양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파되며 기후, 식이(食餌)와 생활상태가 상호 관련된다고 했다. 1500년대 프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가 처음으로 감염이 병원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당시 유행하던 역병이 ‘직접 접촉’, ‘병원체의 이동’, 그리고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본 것이다. 17세기 초 현미경 사용으로 마침내 미생물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전염병의 방지에 소독이 시작되고 미생물 배양기술과 백신도 개발된다. 20세기 들어 페니실린(Penicillin) 등의 항생제와 화학요법제가 도입되자 과학자들은 감염병이 정복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백신 개발과 건강교육에 노력한다.

그러나 새로운 역병들이 속속 등장하고 오래된 병도 다시 나타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의한 감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자 감염병의 정복은 다시 요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역적인 감염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어 엄청난 환자를 발생시키는 팬데믹(Pandemic)을 목격하며 이에 대한 공포는 더 커졌다.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연동한 일관된 방역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감염되는 병원성 미생물은 바이러스 200여 종을 포함하여 1,400종이 넘고, 아직도 감염병은 전체 사망 원인의 25%를 차지한다.

근대 이전의 전염병 대유행

역사에 처음 기록된 역병은 아테네(Athens)와 스파르타(Sparta)의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BC 431~BC 404)에서였다. 역병이 아테네를 휩쓸었고, 인구의 2/3이 몰살되었다고 한다. 장티푸스(Typhoid Fever)의 증상으로 추측되는 고열, 통증을 동반한 피부발진과 극심한 갈증 끝에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들이 가장 먼저 죽었고, 이어 날짐승과 동물들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무기력했고, 결국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했다. 그들은 병이 아프리카에서 왔거나, 스파르타가 우물에 푼 독 때문이거나, 사람들 마음속의 죄악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믿었다.

나병(한센병, Leprosy)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오래된 병이고 서서히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11세기 유럽에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나병은 얼굴과 사지에 흉측한 변형을 일으켰으므로 청결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며, 신께 불경하여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다. 환자들은 제한된 거주지에서 특별한 옷에 소리 나는 종을 달고 다녀야 했다. 공공연하게 살해당하거나 거주지에서 추방되는 박해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편견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1. 중세 유럽의 흑사병 상황을 묘사한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의 그림 <죽음의 승리>, 1562 (출처=wikimedia)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역병은 중세 유럽을 강타하여 14세기 첫 유행 시 유럽 인구의 1/3이 희생된 흑사병(페스트, Plague)이었다. 19세기 말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과 환자들의 체액과 비말 전파로서 페스트균이 감염된다고 밝혀졌으니, 그전에는 엄청난 전파력과 사망자를 지닌 원인 불명의 흑사병은 공포 그 자체였다. 흑사병 대유행은 아시아로부터 남부 유럽에 상륙한 후 빠르게 북상하여 엄청난 사망자를 내며 유럽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 ‘역사상 유례없는 별자리의 배치 때문에 발생한 천체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 로마와 아비뇰에 존재한 두 교황과 사제들의 타락에 대한 신의 벌, 여행자들과 소수자들이 옮기는 병이다.’ 등이 원인으로 주장되었다. 이 엄청난 대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대응은 종교시설을 청소하고 성당에 모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모순적이게도 성당에 모인 시민들은 서로 감염을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역병으로 인구가 감소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싸우던 100년 전쟁(Hundred Years' War, 百年戰爭)을 끝내야 했고, 농경도 급격히 어려워졌다. 그린란드(Greenland) 지역의 황폐화는 바이킹의 감소로 이어져서 북서유럽의 해안지방 침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19세기까지 간헐적으로 흑사병이 계속되었는데, 1665년 런던의 흑사병 유행 때는 인구의 20%가 사망했고, 도시의 개와 고양이들이 도살되었다. 1855년 3차 유행은 중국 운남(雲南)에서 시작된 후 중국 전역과 인도로 전파되어 천만 명이 이상이 희생되었다.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흑사병을 겪으며 마침내 사람 간에 전염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검역법이 만들어져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를 격리하고 하선을 막는 방역책을 썼다. 그러나 이 병의 원인을 이방인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전가하였고, 치료도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렇게 여행자들, 마녀로 몰린 여성,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 화형이 이어졌다. 질병으로 농경 인구가 감소하고 기근이 반복되며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하자,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무능하기만 했던 성직자들과 의사들도 신뢰를 잃었으며 유럽 체제에 큰 변화가 왔고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매독(Syphilis)은 15세기부터 유행했는데,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고 성기와 피부에 통증을 동반한 병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접촉이나 물건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다고 믿었다.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효약이 없었고, ‘수은연고’와 ‘훈증(熏蒸) 치료’를 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성행위 관습이 바뀌고 대중목욕탕이 사라졌으며, 매춘부와 이방인에 대한 감시가 집중되는 등 인간 행동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었다.

천연두도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역병이었다. 근대 초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유럽 인구의 20%가 천연두로 눈이 멀거나 곰보였다고 한다. 1789년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가 종두법(Vaccination, 種痘)을 성공시킨 후 모두 접종을 받게 되며 천연두는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나, 19세기 말까지도 접종이 천연두를 더욱 확산시킨다

는 의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1979년 12월 9일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천연두가 인류에 의해 근절된 최초의 질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천연두를 근절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의 숙주가 사람에게 국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천연두의 근절은 인류의 큰 업적인데, 제너의 종두법은 200여 년 전부터 알려진 경험을 개선시킨 것이다.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아메리카 상륙은 전염병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였다. 유럽에 만연하던 천연두, 홍역, 페스트가 아메리카 원주민에 전파되었고, 이 병에 면역이 없던 원주민은 많게는 90%가 사망하였다. 콜럼버스 상륙 시 타이노족(Taino) 원주민은 6만 명이었으나, 불과 50여 년 뒤에는 5백 명 이하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아즈텍 제국(Aztec Empire)에 전파된 천연두는 엄청난 사망자를 낳았기에 스페인 점령군에 저항할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렇게 16, 17세기에 최대 5천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천연두와 홍역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인류의 대규모 역병의 원인균은 대부분은 소, 말, 돼지나 애완동물에게서 온 것인데, 유라시아 대륙인들은 모두 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으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는 이런 동물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한다.

인도 지방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7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식민지를 건설했던 영국군 병사에 의해 인도로부터 전파된 콜레라균은 군사 이동과 식민지 교역 등으로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러

이재태

시아에서 시작된 첫 번째 대유행으로 100만 명이상이 사망했고, 1830년의 2차 대유행은 발트해(Baltic Sea) 연안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을 휩쓸었다. 콜레라가 식수 펌프장의 오염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대유행이 22년이 경과한 후 영국 의사 존 스노(John Snow)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단지 외국인 이민자들과 빈민, 더러운 인간들의 병이라고 치부하였다. 콜레라는 1884년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비브리오 균(Vibrio species)을 발견한 이후, 위생에 신경을 쓰자 감소하기 시작했고 1885년 백신이 개발되며 대유행이 종식되었다.

이가 옮기는 발진티푸스도 유럽의 풍토병이었고, 주기가 불규칙적인 몇 번의 대유행이 있었다. 19세기 초 아일랜드 주민 600만 명 중 70만 명이 발진티푸스를 앓았고, 기근과 함께 역병에 살아남은 이들은 신대륙으로 탈출했으나 이주 도중에도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이민을 받은 캐나다 퀘벡(Quebec) 당국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자들을 물과 의복도 제공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 격리하였고, 결국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 포함한 6천 명이 격리지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더욱이 역병은 당국의 희망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에게 퍼져나갔다.

18~19세기에는 카리브 해(Caribbean Sea) 섬나라에서 시작하여 북미 대륙으로 확산된 황열의 대유행이 있었다. 1850년대에 세 차례에 걸쳐 카리브 해 국가들은 황열의 대유행으로 초토화되었다. 나폴레옹(Napoléon I)의 프랑스는 아이티(Haiti)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황열에 군대 대부분을 잃었고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지역의 광활한 땅을 미국에 양도하고 철수했다. 미국으로 확산된 황열로 1793년 필라델피아 시(City of Philadelphia) 인구의 10%가 사망했다고 한다. 발진티푸스와 마찬가지로 황열은 위생에 신경 쓰고 주변을 소독하며 환경을 개선하자 점차 줄어들었다.

결핵은 19세기 이후 단일 질병으로는 성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발명이 사람들의 접촉으로 결핵이 옮겨진다는 것을 처음 밝혔고,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결핵 환자를 건강인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각종 공중보건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들을 백안시하고 차별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1920년 프랑스에서 결핵 예방 접종(BCG)이 개발되고, 영양 상태의 호전으로 저항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치료제도 등장하자 결핵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BCG接种의 선호도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위생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독감(인플루엔자, Influenz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자주 일으키고 공기에 의해 쉽게 전파되며 다른 통제수단이 없다. 1889년 러시아의 시베리아(Siberia)와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에서 시작되어 핀란드(Finland), 폴란드(Poland)를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36만 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1918년 발생한 스페인독감(Spanish Flu, Spanish Influenza)은 더욱 끔찍했다. 스페인은 주된 발병지가 아니었으나 독감 보도를 많이 하였기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며, 미국 캔자스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Kansas)에서 시작했다는 주장 또한 있다. 당시 봄과 가을의 두 차례의 유행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5천 만에서 1억 명이 죽은 인류 최대의 피해를 남겼고,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종식에도 영향을 미친 정도다. 그러다 1919년이 되며 스페인독감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독감은 변이가 많이 일어났고, 이후 1957년 홍콩 등 아시아에서 다시 발생하여 110만 명이 사망했다. 지금에 이르러 독감 백신의 개발로 대유행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중세 이후 역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전염병은 오랫동안 죽음을 뜻했다. 역병이 돌면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범죄가 만연하며, 가족도 해체되었다. 역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 반응과 사회 질서의 붕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인류가 전염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임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중세와 근대 초기까지 질병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신의 천벌이라 믿었고, 나쁜 음식을 먹고 더러운 곳에 사는 하층민들 때문에 발생한다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책임을 전가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역병이 돌면 거지를 추방하고, 성당 청소를 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의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역병이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인식

이 생겼다. 사람 간의 교류가 확대되자 인간의 이동과 유입에 의한 질병의 전파를 처음으로 걱정하게 된다. 인접국에 역병이 돈다는 것은 공포였다. 국가는 항해를 차단하였고, 감염자를 위한 병원도 처음으로 생겼다. 역병에 대한 대책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당시 보건 대책은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이었고 효과도 없어서 병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14세기 흑사병 유행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18세기 이탈리아(Italy)의 국가들은 비감염자들의 통행을 위한 ‘건강통행증’을 발행하고 도시에 검역소를 설치했으며 방역선(防疫船)으로 운행하는 배도 검역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봉쇄와 격리가 이어지자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 간에 긴장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다.

20세기의 감염병

19세기 이후 교통의 발전으로 왕래가 빈번해지고 산업화로 도시가 팽창하자, 전염병 관리에서 정부의 역할도 커졌다. 1870년 미국에서는 대규모 황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 위생국이 처음 설치하고, 병원균이 증식하는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서로 속이고 압박하던 방역 대책에서 협력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의 이익에 따라 마련되고 그 나라 내에 국한되었던 차단방역, 위생방역, 보안 등의 방역정책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 감염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20세기 들며 환경위생의 개선과 항생물질의 발명, 예방 백신의 개발로 전염병과의 전쟁의 승리를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관계와 마약, 빨라진 세계여행, 자연환경 훼손, 기후 변화와 항생제의 남용과 같은 우리 삶 주위의 변화를 간과했다. 세계는 새로운 신종 전염병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1981년 이후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뇌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WNV) 뇌염 등의 신종 전염병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세계화는 사스,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신종 감염병의 전파와 연관되었고, 변종 인플루엔자와 증을 뛰어넘는 병원균의 확산으로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역학(疫學)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며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심해진 결정적인 시점이 두 번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17세기 후반으로, 이때 유럽 대부분은 흑사병과 같은 역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때이다. 한번은 19세기 말로, 콜레라, 황열, 흑사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 대유행이 구미(歐美)의 산업화 된 지역에서 수그러진 것이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제 덜 문명화된 지역의 감염원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검역과 금수(禁輸)조치로 이어지며 부국과 민국의 경제적인 격차를 더욱 벌린 이유가 되었다.

사진 1. 1918년 스페인독감 유행 당시 미국의 환자 수용 시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전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5억 명의 환자와 3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말라리아, 매독, 결핵, 페스트, 홍역 등 사라져가던 전통적 전염병들이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8,096명이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했던 사스는 박쥐에게서 고양이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즉 사람과 동물 간의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이 등장이다. 호흡기 질환이며 비밀감염으로 전파되는 사스를 겪으며 마스크와 격리의 효과를 경험한 후, 이후 H1N1 조류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의 방역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19년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유래된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 감염이었기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에 1,300만 명 이상의 환자와 6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WHO는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하며 세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으니 아직도 미래는 밝지 않은 상태이다.

미래의 전염병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이고, 가까운 장래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원인은 핵무기보다는 신종 전염병의 유행에 의한 것이라 예측이 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옮겨지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으나 21세기의 사스는 불과 며칠 안에 전 세계로 전파되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2019년 말 등장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조차도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상업, 공업, 농업,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신종 전염병들은 병원체가 다른 동물로부터 인간에 유입되거나, 기존 병원체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은 과도한 개발에 의한 환경과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 사회의 교통 및 교역 증가, 항생제 사용 등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 산업 및 기술 문명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삶이 역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인간에게서만 발생하던 감염병이 종의 경계를 넘어 이종 간에도 감염되는 상황을 보다 자주 마주할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의 병원성 미생물체는 직접 접촉이나 환경 오염에 의한 간접 전파, 매개체를 통하여 전파되고,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만 전파되었다면, 미래에 마주하는 새로운 감염병은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경험한 사스와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장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소 사육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치명적인 조류독감과 인간 감염도가 높은 돼지독감도 밀집 사육하는 양계 및 양돈 산업과 연관되어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진 2.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점을 표현한 정민규 작가의 <현대인의 모습-대구 2020>, 마스크를 사용하였다.(출처=정민규 제공)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용히 다가오는 미지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현재의 전략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격리를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 시켜 초기 단계에서 감염을 정복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제가 많지 않고, 나라에 따라서는 구할 수도 없다. 백신 개발도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엄청난 진전이 있었지만, 어떤 기술과 첨단 치료법도 전염병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여전히 절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아직도 질병 환자의 격리와 건강인에 대한 감염 차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학 조사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사망률을 줄였고, 마스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적 격리를 준수하는 것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질병의 특성과 감염 경로를 빨리 파악하고 전파가 일어나는 시기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전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간에도 정보 전달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국력이 강한 나라만이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니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폭발적인 감염병의 발병에는 공포심으로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말고, 정부와 민간이 단결하여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인과 방역 당국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고,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의 전파를 막으며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앞으로 반복될 전 세계적 감염병에는 감염원의 차단과 방역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마크 해리슨(Mark Harrison) 지음, 이영석 옮김, 2020, 「전염병 역사를 흔든다」, 푸른역사
- 제니퍼 라이트(Jennifer Wright) 지음, 이규원 옮김, 2020, 「세계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산처럼
- 헨리 지거리스트(Henry E. Sigerist) 지음, 이희원 옮김, 2005,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몸과 마음
- 정준호, 2016.3.30. 「오래된 낯선 위협: 감염병에 맞선 인류, 성공과 실패 이야기」 사이언스 온
- 송영구, 2005,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중」 대한내과학회지 pp.68-127

코로나19 시대, 무대예술은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공연’과 ‘영상’의 만남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일, 미국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신문에는 한국 공연가에 관한 소식이 대서 특필 되었다. 팬데믹(Pandemic) 상황을 뚫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한국 투어에 관한 소식이었다. 어떻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표준을 의미하는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며 무대에서의 라이브 상연을 지속하고 있는지가 글로벌 미디어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사실 대한민국 공연가의 가치 ‘기적’적인 상황은 비단 언론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관객들의 폭넓고 호기심 어린 시선은, 어떻게 한국이 K-방역의 노하우를 축적해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공연의 메카로 군림하던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는 최근 잇따른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수십 년째 늘 공연을 계속하며 ‘이제와 같이 항상 영원히(Now and Forever)’ 같은 홍보문구를 앞세우던 뮤지컬 공연장들도 된서리를 맞긴 마찬가지다. 현지 크리에이터들에 의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된 공연장 근처의 스산한 거리 풍경들, 관광객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뉴욕의 극장 구역(Theater District)이나 런던의 씨어터랜드(Theatre-land)의 을씨년스런 모습들은, 마치 공포 영화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하고 낯설기조차 하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작곡가인 영국의 거물급 공연기획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세계도 K-방

역의 노하우를 익혀 하루라도 빨리 어서 공연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남기기까지 했다.

2020년 7월 현재,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별한 비법이나 신으로부터의 축복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방역과 공연장 및 배우, 관객에 대한 정보 확보 및 데이터 공유,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대응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관객들 사이에서는 ‘공연장엔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에티켓’이라는 무언의 약속도 암암리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다. 구입한 티켓 좌석 위치에 맞춰 개인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극장 방문데이터를 제공 해야 하기 때문이다. IT 강국답게 QR코드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도 꽤나 원활히 그리고 폭넓게 작동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연장에서의 감염확산이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도 펼친다. 공연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있고 손 세척, 열 감지 카메라 운용 등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시스템이 철저히 지켜지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고 무대 쪽 방향만 바라보며 말없이 관극하는 환경이 방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공연장보다 식당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농담처럼 오간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벗고 동행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연장이 식당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원칙과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공연장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요인만 빼고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대한민국 공연계의 정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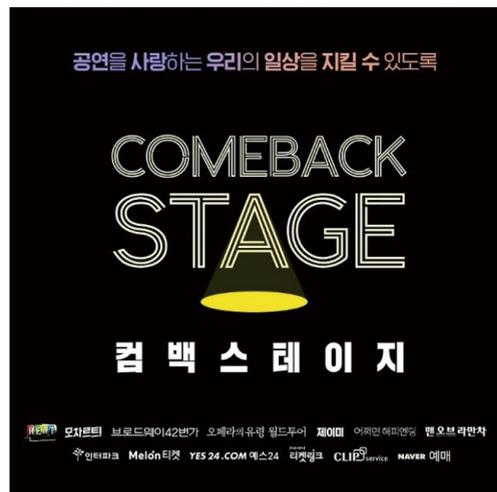
실제로 우리나라 뮤지컬 공연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반대로 확진자가 발견된 적은 있다. <오페라의 유령>에 참여했던 미국 배우 2명이 부산 공연이 끝나고 서울 공연이 있기 전, 고국인 미국에 다녀와 서울 개막에 참여한 후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연 기획사 측은 발 빠르게 다른 배우 및 스태프, 방문 관객에 대한 전수조사와 잠정적인 공연 중지를 이행했고, 그 결과 PCR 검사에서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돼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가슴 쓸어내릴 만한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최근에는 발열자에 대한 해프닝도 등장했다. 하반기 개막을 준비 중인 뮤지컬 <킹키부츠(Kinky boots)>의 연습실에서 배우 한 사람이 발열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특정 공연에 참여하며 동시에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하는 국내 뮤지컬 업계의 여건상, 이 연습장에는 이곳저곳에서 막을 올리는 여러 공연들의 배우들이 함께 있었는데, 발열 증상의 발견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관계자들은 재빨리 이 정보를 여러 공연장 및 단체들과 공유했고,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다행히 반나절 만에 발열을 보였던 배우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드러났고, 공연계는 가까스로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발열자의 등장이 한국 공연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빠르게 대응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언론지상의 긍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고조, 그리고 급격한 매출의 하락은 공연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뮤지컬 공연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컴백 스테이지(Comeback Stage)’ 캠페인이다. 규칙적이고 정례화된 공연장과 객석에 대한 방역, 배우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프리(Virus Free)’ 환경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유를 통한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뮤지컬 공연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의 노하우와 자신감이 공연계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양코르 넘버가 노래되는 커튼콜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인기 배우의 독창이나 아이돌 출연자가 뮤지컬 넘버를 멋지게 다시 불러주던 예전과 달

사진 1. 뮤지컬 제작사와 예매처가 함께 진행하는 ‘컴백 스테이지(Comeback Stage)’ 캠페인 홍보 이미지



리, 배우 전체가 합창으로 노래하거나 감동의 눈물까지 더하는 퍼포먼스로 객석을 눈물짓게 만드는 경우도 등장했다. 아무래도 전대미문의 천재지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무대를 지켜나가겠다는 예술가들의 의지가 투영된 일종의 결의로도 보여진다. 공연 예술이, 뮤지컬이, 무대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로 다시 되돌아오길 간절히 꿈꾸는 모양새다. 삶의 고난과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불굴의 인간 정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뺏길 순 없다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뮤지컬계가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컴백 스테이지 캠페인 영상 보기



영상 기술과 결합하는 공연들 - NT 라이브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의 ‘변화’ 혹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진화’에 대한 논의들이 왕성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교류하는 무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른바 ‘공연과 영상의 만남’이라 일컬어지는 랜선 공연 혹은 언택트(Untact) 공연에 대한 실험들이다.

물론, 가장 직설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공연을 영상적인 방식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다. 무대라는 공간을 영상으로 대체하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영상 문법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식의 작업들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1980~90년대 특히 공중파 TV에 의해 자주 시도되던 ‘XX스페셜’ 부류의 특집편성 프로그램 식 접근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기에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연을 영상화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1950년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큰 유행을 기록했던 뮤지컬 영화의 제작 붐이나, 반대로 영화를 가져다 다시 무대용 콘텐츠로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거치는 무비컬(Moviecal)의 등장 역시 무대가 영상과 교류하며 빚어내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 중에 돋보이는 사례는 단연 <내셔널 씨어터 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 NT Live)>다. 영국 런던의 왕립 국립극장(Royal National Theatre)이 주관하는 이 영상화 작업은, 수도권외의 대형공연을 영상화된 신호 형태로 지역

문예회관, 나아가 전 세계 영화관 등으로 통신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적 과정을 통칭한다. 처음 영상화가 시도된 것은 2009년 6월 25일 헬렌 미렌이 출연한 <페드라(Phedre)>였는데, 영국 전역의 70여 개 영화관과 200여 곳의 전 세계 상영관에서 5만여 명의 관객들에게 실시간 중계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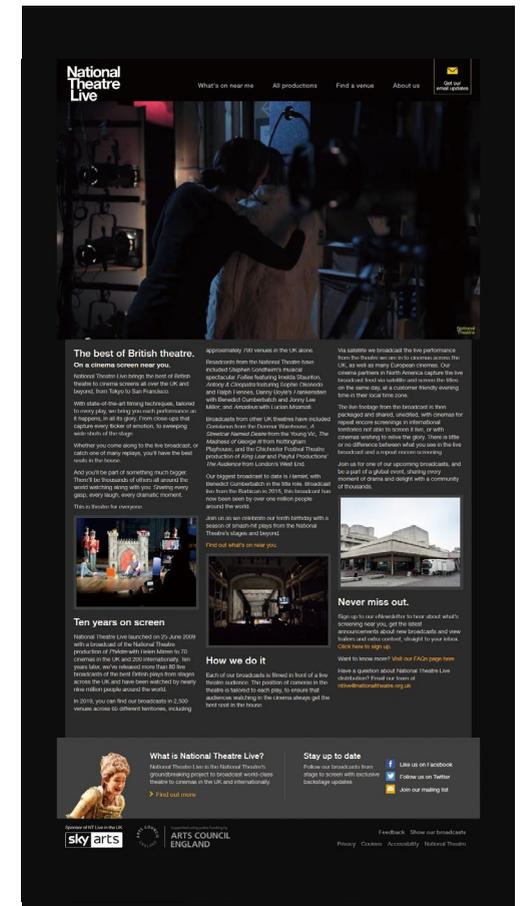


사진 2. 내셔널 씨어터 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 NT Live) 홈페이지

사실 공연을 영상으로 생중계한다는 아이디어는 NT 라이브가 처음은 아니다. 이보다 3년여 앞서 미국 뉴욕에서 이미 엇비슷한 실험이 화제를 모았다. 바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라는 이름으로 4개 국가 98개 상영관에서 생중계된 모차르트의 오페레타(Operetta) <마술피리>다. 생소했지만 파격적인 이 실험은 꽤나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뒤를 이은 NT 라이브 역시 오페라가 아닌 연극의 생중계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대중들에게 각인되며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NT 라이브는 21개 무대 80여 작품을 영상에 담아 3,500여 개 상영관에서 선보였으며,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관객들을 스크린 앞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 라이브는 사실 교육적 목적도 반영된 프로젝트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수준 편차가 고르지 못한 것에 착안해, 런던까지 와서 공연을 볼 수 없는 지역 관객들에게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시작된 사업이었다. 물론 이 콘텐츠를 활용해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연극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 또한 적극 고려됐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불러오기 전인 2020년 전반기까지 NT 라이브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이뤄내고 있었는데, 지난 2017~18시즌의 경우 디지털 수입은 64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약 90억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영국 국립극장 전체 수입의 약 6%에 육박하는 수치다.

영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영상 콘텐츠로 환원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가능한 마치 공연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일련의 약속된 영상적 전개를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객석의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영상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연상적 전이를 느끼게 배려한다든지, 1막과 2막 사이의 중간 휴식인 인터미션(Intermission)을 영상을 감상하는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도 똑같이 진행함으로써 공연으로써의 콘텐츠 체험을 엇비슷하게 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NT 라이브의 영상화 작업은 극장 체험의 영상적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공간의 확장을 피하는 작업이라 정의 내려 볼 수 있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The Shows Must Go On!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리나라 및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코로나19로 봉쇄 혹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록다운(Lockdown)을 채택하고 있다. 더 이상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기 힘들어진 무대와 공연들은, 무료로 영상화된 공연들을 인터넷 스트리밍하는 등의 대중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프로젝트들을 신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해시태그를 붙여 공개되고 있는 ‘#StayHomeWithMe(저와 함께, 저를 보며)’로 명명되고 있는 일련의 캠페인들이다.

세계 각국 유수의 공연단체들과 기관들에서 동참하며 소위 언택트 공연을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외국을 나가 공연장을 찾지 않으면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공연들이 무료로 공개됨에 따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꽤나 화제가 되며 연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뮤지컬계의 미다스라 불리는 영국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쇼들은 계속돼야 한다(The Shows Must Go on)’ 캠페인이다. 영국 시각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48시간 동안 무료로 전막 공연을 공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들거나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에서는 <조셉 앤 디 어메이징 테크니컬라 드림코트(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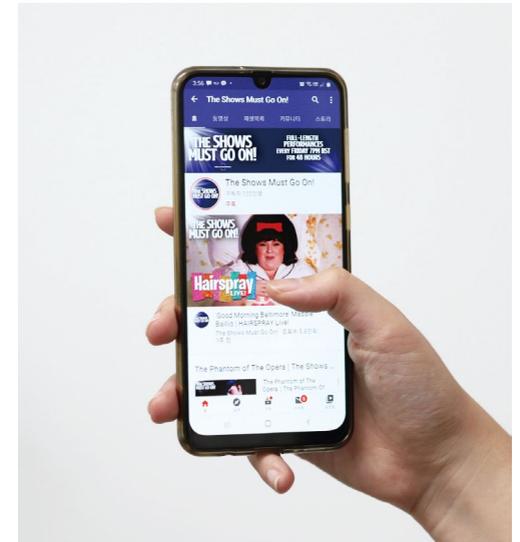


사진 3. 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 유튜브 채널

Dreamcoat>>, <캣츠(Cats)>,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바이 지브스(By Jeeves)>, <헤어스프레이(Hair Spray)> 그리고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에서 열린 <오페라의 유령의 25주년 기념 콘서트>나 후속편 격인 <러브 네버 다이스(Love Never Dies)> 등을 차례로 그리고 번갈아 공개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캠페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화려한 이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뮤지컬 작곡가로서뿐 아니라 프로듀서로서도 활동을 이어온 그의 업적과 그것들을 사업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1977년 설립된 리얼리 유스풀 그룹(Really Useful Group, 이하 RUG)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근래에 새로 만들

어진 것이 아닌, 오랜 세월을 걸쳐 제작되어진 영상물들이다. 즉,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RUG에서 꾸준히 시도해온 무대 영상화 작업의 결과물들인 셈이다. 시선을 과거에 두고 미래를 맞이한다는 영국 사람들 특유의 세계관이 반영된 흥미로운 시도라고 말한다.

RUG는 다양한 조직들로 이뤄져 있다. 우선 공연을 만드는 리얼리 유스풀 씨어터 컴퍼니(Really Useful Theatre Company, RUT)가 있다. 비단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작품들뿐 아니라 그가 프로듀서로서 관여하는 모든 작품들의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다. 리얼리 유스풀 레코즈(Really Useful Records)는 로이드 웨버가 제작한 공연의 캐스트 앨범을 제작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엘더블유 씨어터스(LW Theatres)는 런던의 6개 극장을 소유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리얼리 유스풀 매거진스(Really Useful Magazines)는 영국의 공연정보를 알려주는 월간지인 「씨어터고어스(Theatregoers)」를 발간하는 회사다. 2000년 시작된 이 책자는 엘더블유 씨어터스에서 올려지는 공연에 프로그램 복과 함께 제공되어 진다. 또한 그중에는 리얼리 유스풀 필름스(Really Useful Films)도 있다. 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든 뮤지컬들의 영상화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설립 초기에는 저예산의 소장용 비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상의 퀄리티(Quality)를 향상시키고 대형 예산이 소요되는 극장판 공연영상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이번 ‘쇼들은 계속돼야 한다.’ 캠페인에 공개된 대부분의 영상들은 물론 이 자회사에서 제작되어진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연의 영상화, 그리고 남은 과제들

물론 이들 이외에도 글로벌한 규모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공연 영상화 사업은 꽤나 다양하고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영상물이 공연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예측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영상의 특성은 다양한 샷들의 모음을 통한 비주얼적인 이미지의 재구성에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조되는 무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마치 영상의 소비자가 공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의 확장을 실험하는 부류의 첨단 영상들 - 예를 들어 VR과 결합된 입체적인 실감 영상의 접목이나 360도 카메라와의 융합과 같은 도전들도 왕성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파격적인 실험들이 실제 이용자들의 사용으로까지 확장되기에는 적지 않은 실험과 보완, 그리고 마지막의 실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편리한 매체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과연 영상화 실험의 결과가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다. 콘텐츠의 소비와 매출구조라는 측면에서 영상과 무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영상이 다양한 창구(Window)를 통해 대량으로 반복적인 유통에 따라 소비되는 패턴을 따르는 데 반해, 공연은 장기상연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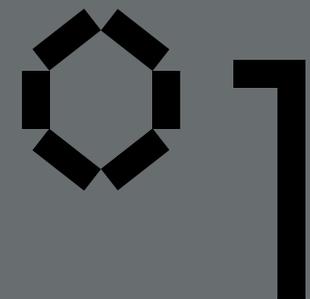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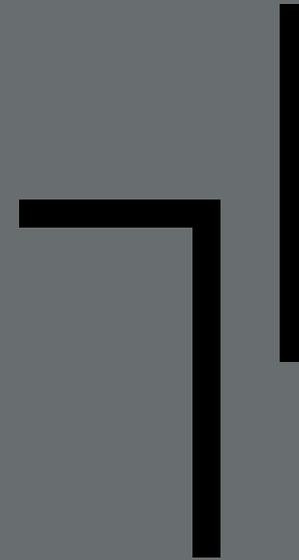
가는 매출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공연과 영상의 유기적인 결합이나 나아가 공연의 영상으로의 대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의 변환이나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재생산의 동기부여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반해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여건은 솔직히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잠정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기도되어지는 자발적인 기부(Donation)에 의존하는 매출구조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체란 아직 요원한 목표일 뿐이다.

영상의 매출구조에 대한 분석도 참고해볼 만하다. 영상의 매출은 광고수익과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통한 박리다매의 수익구조 그리고 선택적 소비에 따른 이용료의 지불과 같은 방식으로의 만들어지는 매출 등이 대표적이다. 광고수익은 다시 전 광고, 중간광고, 후광고의 형식 혹은 PPL(Product in Placement) 방식으로 상품 혹은 브랜드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형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영상의 유통에 따른 수익은 유료 TV를 통한 매출의 발생과 수익의 배분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구조 활용과 최근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OTT(Over The Top) 혹은 VOD(Video on Demand)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영상화된 공연이 이러한 구조와 형식을 접목해 효과적인 매출의 창출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인데, 그리 만만치 않은 도전과 보완, 적용과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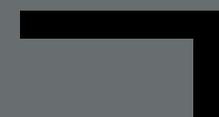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보완적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급하게 서둘러 영상이 공연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거나 기대하기보다 공연과 영상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윈-윈(Win-Win)관계의 모색이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의 관계 정립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즉, 커피가 더 많이 팔리면 홍차의 소비가 줄어드는 관계가 아닌, 커피가 많이 팔릴수록 프림도 더 많이 소비된다는 플러스로의 사고 전환은 공연과 영상의 관계 설정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공연과 영상의 유기적인 결합에 대한 실험이 과연 문화와 예술의 진보로까지 그의 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 차분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이다.

SECTION 02.
기억을 담다



기억을 담다



이태원의 소설 「객사」와 고향 칠곡에 대한 회상

그림 김상덕



그림 1. 소설가 이태원

이기원

(시인)

칠곡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의 「객사(客舍)」가 문단에 등단한 것이 반세기가 흘렀다. 1970년 '동아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거금의 상금을 받으며 영예의 당선작이 된 지 50년이다. 1910~20년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우리 민족의 항거 정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고향 칠곡과 칠곡향교, 객사 등을 무대 삼아 일제에 맞서 어떻게 나라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민족의 얼을 마음속 깊이 각인 시켜 내었는지 생생히 기술하였다.

그렇게 고향 칠곡을 작품 속에 등장시키며 창작활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세가 기울어 도망치듯 떠난 고향 땅을 다시 찾는 데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렀다. 1960년 가까머리 미성년을 채 벗어나지 못한 나이에 떠나서 실로 20여 년만인 80년대 초에 다시 찾은 고향 칠곡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어린 시절의 아련하고 안태(安胎)한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후였다. 「객사」를 집필하며 상상하고 추억하던 고향의 모습과 20여 년이 지난 풍경은 끄떡없을 줄 알았던 산천마저 개발된 채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세월의 흐름이 바뀌놓은 고향 마을을 둘러보던 작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오래되고 낡은 것은 하나둘, 자취를 감춘 곳에 새로운 문명이 자리하고 수많은 고향 사람들도 간데없어 낯선 그곳, 그야말로 마음속에 고향 칠곡은 이미 저 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객사」 이후 작가는 고향을 주제로 한 작품은 한편도 남기지 않았는데, 아마도 고향에서의 안타까운 가족사와 연관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동생인 필자에게 늘 늘어놓은 고향에 대한 애처로운 심정을 떠올려보면, 누대로 살아온 칠곡

과 적몰한 가옥을 뒤로 하고 대구 언저리로 이주하면서 아마도 고향에 대한 미련과 기억은 그곳에 고스란히 남겨놓고 온 듯하다.

사실 칠곡은 고읍(古邑)이 아니었다. 역사기록을 보면 한 고을로 승급된 것은 조선조 중기인 인조 18년 1640년 때이고, 소설 속에서처럼 지금의 '읍내'(대구 북구 읍내동 일원)에 관아가 들어선 것은 순조 19년 1819년 경이었다. 그 시대에 이르러 관아건물들과 향교, 객사가 세워졌으니,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 해 봤자 인조 이후이다. 그러나 작가의 가슴 속에는 저 먼 신라 시대 '팔거리현'과 고려 때의 '팔거현'으로 남아, 늘 오래된 고읍의 형상으로 살아 꿈틀거렸을 것이다. 그런 작가 이태원에겐 고향이란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평생 가슴에 새겨진 연비와 같아 고향을 주제로 한 작품 「객사」를 창작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부채감으로부터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갔다.

소설 「객사」 속 등장인물들이 기거하고 삶을 이어갔던 공간들도 하나둘씩 문명의 개발 앞에 모습을 감추거나 바뀌었고, 지명 또한 바뀌거나 사라진 곳이 많다. 발전을 앞세워 매차고 냉정하게 근대유산을 매장시켜 버렸고, 겨우 문화재라는 일부 유산만 덩그러니 남아 숨을 헐떡거리며 빛 바랜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칠곡향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치 모형을 따오듯 「객사」에는 고향의 옛 지명과 건물, 인명까지 옮겨놓았기에 우리는 소설을 통해 지난 역사의 기억이나마 간직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음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 식민지 시대, 일제하에서 온갖 수탈과 핍박,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고향 사람들의 곤궁했던 삶을 기억하며 짙은 눈물 한 줄이나마 축수할 수 있어서 고맙다.

「객사」의 주인공 송판돌과 김벽순, 그 식솔들이 아표 직전의 낭떠러지 삶을 이어가며 살았던 '향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남아 오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향교가 있는 '행고마'에는 어느 누구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갔던 향교 앞 하마비(河馬碑)부터 시작되는 길이 쪽 나 있는데, 당대의 가장 중심적 행정거리였던 그곳이 고향의 작가 이태원을 기리는 '문화예술거리 이태원 길'로 명명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

향교 뒷산 너머 깊은 산골마을 '조피골'은 아직도 안녕하지 못한 마을인가? 들이 없어 논농사를 작파하고 땅이 척박하여 조와 피만 무성하게 자란다는 '조피골'. 쌀은 구경도 못하고 겨우 조나 피 같은 잡곡 농사로만 생계를 잇고 배를 겨우 채우며 누렇게 부황 든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는 것도 아마도 지명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리라. 산 아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팔거들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던 조피골 주민들의 삶이 「객사」 속에서도 잔잔하게 녹아 기록되어 있다.

팔거들을 가로지르며 마을 곡창을 적셔주던 '팔거천'은 칠곡 사람들의 젖줄이었고 생명줄이었다. 매년 칠팔월 장맛비에 누런 황토물을 실어 날라 소작 농부들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래하고 팔거들에서 재배된 채소를 씻어 장터로 내다 팔던 고마운 강이기도 했었다. 동명 오계산에서 발원한 '팔거천'은 칠곡 팔거들로 싹뚫처럼 흘러 골고루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대구의 고운 금비단 물결이 흐르는 금호강에 이르러 16km의 장정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상(河床)의 모래톱을 씻으며 바다로 흘

러간다. 유려하게 흐르며 칠곡의 팔거들을 기름지게 했던 ‘팔거천’도 이제는 생태하천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를 하고 있다.

사진 1. 팔거천이 흐르는 현재의 대구 칠곡의 풍경(출처=대구북구 행복북구사진공모전 당선작)



유림과 양반들이 주로 기거하며 위세를 떨쳤던 팔거천 북동쪽 ‘학정골’도 개발의 바람에 옛 모습은 간데없이 높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 되었고 ‘아시골’도 매 마찬가지이다. 고향 칠곡은 세월 속에서 상전벽해로 변해버렸고 간간이 역사의 기억을 간직한 문화재와 말 없는 고목들만 등성 등성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다. 누대로 간당거리는 명줄을 이어가며 살아왔던 골골의 골짜기 마을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아스라이 살아나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옛 지명의 마을들, 눈감으면 고향이 보였다가 눈 뜨면 생소한 문명의 불빛만 화려한 타향이 되어가는 고향 칠곡...

그러나 세월과 시대의 변화 앞에 언제나 옛 모습만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진 세월과 개발의 욕구를 이기고 서 있는 역사의 유산들이 아직도 생생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조각조각 모으고 기억의 파편들을 엮어 문화거리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칠곡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객사(客舍)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칠곡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에, 지금 칠곡 성당의 자리에 객사가 자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처럼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재탄생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 위치 옆에는 지역 사대부와 유림들의 정신적 본산이자 고읍의 정기가 서려 있던 ‘칠곡 향교’가 아직도 당당하게 도시의 중심부에서 그 자태를 뽐내며 오래된 은행나무와 함께 자리한다. 가을이면 샛노란 빛을 발산하는 향교의 은행나무를 마주하고 있노라면 수백 년 세월을 버티며 모진 역사의 현장을 바라봤을 그 마음이 아련히 전해지는데, 단순한 문화재만이 아닌 오랜 기억이 고스란히 깃든 역사의 현장이자 칠곡 정신을 간직한 정전(正傳)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향교에서 우리 민족의 강건함을 목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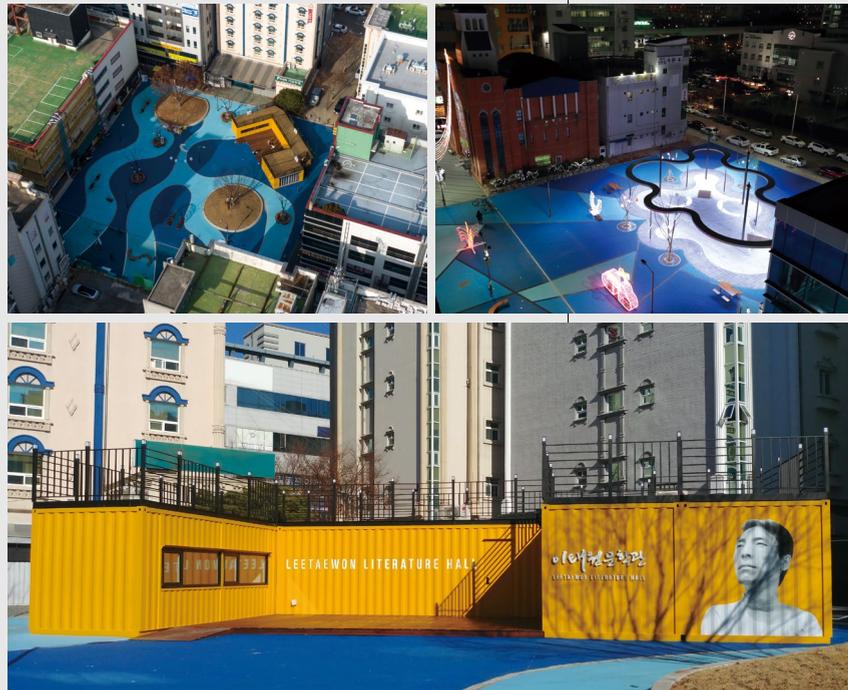
그림 3. 칠곡향교의 은행나무

“향교의 정기뿐 아니라 온 읍내의 정기가 서렸고 생명의 근원인 샘이니까 누구도 범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살피게나. 그게 상책이 아니겠는가.” ...중략...
 “향교와 읍내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계신 곳이 아닌가. 향교는 정신의 지주요, 뒷산은 흥망의 원천일세. 오희음!” (이태원 장편소설 「객사」 중)

한일합방 후, 일제는 창씨개명과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도했다. 제일 먼저 지역의 지식인과 유림의 거점이자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향교를 파하고 그 자리에 신사를 건립하는 만행을 거침없이 밀어붙였고, 교육기관 역할도 했던 향교를 없애 소학교, 보통학교를 세우며 국민 교육을 일제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민초들은 무수한 외세의 침탈에 맞서 곳곳하게 백성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오랜 세월 매서운 삶을 견뎌왔음을, 「객사」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그 시대를 더욱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향교 고지기였던 판돌과 벽순, 그 자식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일제의 신사건립을 막아섰고, 유림들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거대한 제국주의의 무력을 앞세운 문화 침탈에 무참하게 깨지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무모하게 맨몸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다. 치열한 저항으로 결국 일본이 신전처럼 모시는 신사를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불사르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객사」 속에서 향교는 일제 수탈의 배경이기도 했지만, 칠곡을 지키고자 했던 읍민들의 승리의 장소로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 칠곡3지구 변화가에 조성된
2.3.4.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일개 소설에 지나지 않는 「객사」지만, 칠곡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에 의의를 가진다. 여타 작품이 다루지 못한 시대상을 잘친 문장과 촌촌한 구성, 실감 나는 인물과 장면묘사로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었다. 한 편의 소설이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에 공중파 3사에서 특집 드라마로 제작, 방영된 경우가 아마도 문단에서 유일무이하고 또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국립극단 연극으로 제작되어 전국에서 실연되었는데, 지난 1979년 그의 고향 대구에서도 공연되어 큰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한 작가의 지극한 고향에 대한 애뜻함이 만든 작품, 「객사」는 본인의 업적에도 큰 획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의 고향 칠곡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 주었으니 이야말로 문화가 가지는 힘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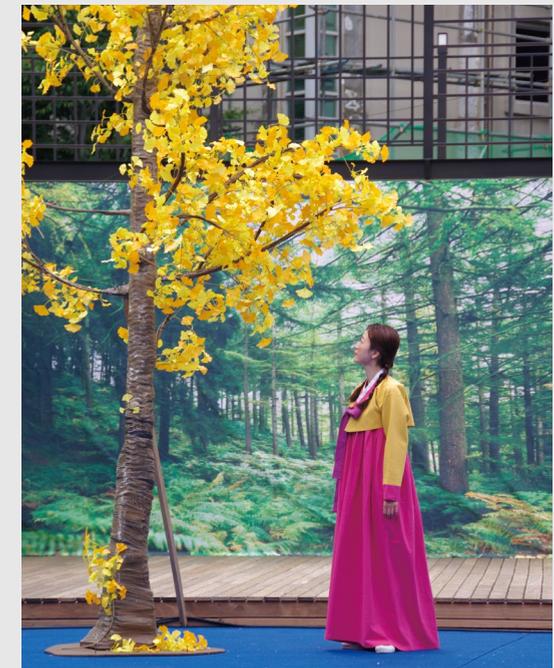


사진 5.6.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에서 공연되는 거리극 <은행나무는 이야기한다>의 한 장면

작가 이태원을 낳고 길러준 고향 칠곡은 여전히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도시로서 역할을 자임하며 향토 소설가를 기리는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 더욱이 그 거리에서는 「객사」를 극형식으로 재편성하여 소개하며 문화 콘텐츠로 새 숨을 불어넣고 있다.

몇 해 전, 칠곡초등학교 교정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들의 선배이자 지역의 대표 소설가 이태원을 기억하는 문학비가 세워졌다. 그 기억이 단단하게 박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주길, 또 그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앞으로의 칠곡을 빛내길 바라본다.

팔거천을 따라 팔거들, 읍내 중심에 서 있던 향교와 행고마, 객사, 조피골, 학정골, 아시골... 지금은 옛날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정신은 아직도 골골에 남아 있을 것이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고향 칠곡 사람들을 하나둘씩 직조해 소설 속에 새기고 신분 여하 없이 하나로 뭉쳐 민족 항거 정신을 살려낸 이태원의 장편 소설 「객사」는 향토사는 물론, 역사 속에서도 당당히 기록되어도 좋을 향쟁사이다.

작가는 다시 찾은 고향 앞에서 “모두가 사라지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다. 옛 모습, 옛 추억을 더듬을 흔적이 없어진 것이다.”라고 허망함을 말했다. 그러나 그의 허망함이 낳은 불굴의 작품 「객사」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는 그 흔적을 되찾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소설 속에 등장했던 지역 주민들을 기리며 생각하건데,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그 역사의 땅을 밟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성찰할 수 있는 지역사가 있는 고향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라나는 미래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역사와 자랑스러운 지역민의 삶의 행적이 있었다는 것 또한 고향의 자랑이자 금지가 아니겠는가!

소설가 이태원
1942~2008



문화예술거리 이태원 길에 대하여

소설가 이태원은 1942년 북구 읍내동에서 태어난 대구 칠곡 출신 소설가로, 1955년 칠곡초등학교, 1958년 경북중학교, 1961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70년 동아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객사」가 당선됨으로써 중앙문단에 등단하였으며, 대표작 「객사」는 국립극단과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TBC)에 3·1절 특집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된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 외 주요작품으로는 「객사」, 「초야」, 「낙동강」 등 30여 편이 있으며, 중앙 문단에 진출 후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대한 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실천문인협회에 가입하는 등 소설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08년 3월 8일 67세에 짧은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팔달교를 건너며

박순국

(사진작가,
전 매일신문 기자)



사진 1. 팔달교 전경(출처=이상열 촬영)

금호강 맑은 물은 대구분지를 감싸듯 흐른다. 강폭은 하루로 내려오면서 넓어진다. 그 강을 가로질러 팔달교는 튼튼한 교각들을 강바닥 깊숙이 고정시키고 엮드려 있다. 아무리 거센 물살이 몰려와도 꿈적하지 않을 자세다. 그의 등판 위로 곧게 뚫린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고 간다. 대구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은 아침에 팔달교를 통해 강을 건너고 저녁에 다시 건너오면 하루가 갔다고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째 휴직하는 처지가 됐다. 팔달교를 건너다니는 일이 참 고마운 일과였음을 쉬어보니 알겠단다.

팔달교라는 이름



사진 2. 대구 지상철 3호선의 차창을 통해 바라본 팔달교와 금호강 (출처=필자 촬영)

팔달교라는 이름은 칠곡 지역의 옛 명칭인 팔거(八莸)와 대구의 달성(達城)을 연결하는 의미의 팔달(八達)에서 유래된 이름이라 한다. 여기서 팔달의 사전적 해석을 보면 ¹ 길이 팔방으로 통하여 있다거나 ² 모든 일에 모르는 것

이 없이 정통하다는 뜻이다. 사통팔달(四通八達), 즉 도로나 교통망, 통신망 따위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구연월'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강구(康衢)는 사통오달의 큰길로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리, 연월(煙月)은 연기가 나고 달빛이 비친다는 뜻으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팔달교는 그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국도 5호선, 신천대로, 지상철 3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국우터널 관통 전에는 강북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통로가 팔달교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체증이 심했다. 지금은 매천대교(제 2팔달교), 서변대교, 무태교 등 대체 교량과 중앙고속도로가 생겼다.



이처럼 많은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으며, 나라와 나라를 잇는다. 즉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밟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특히 사찰에 존재하는 다리는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건너가는 연결의 고리이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과 세상을 이어온 팔달교는 지역민들에 있어서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될 수 있는 고마운 구조물이다.

그 옛날, 날이 가물어 강바닥이 얇을 때는 목교 또는 십다리로 건너다녔고, 장마로 강물이 불었을 땐 나룻배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을 것이다. 수로 교통의 터미널이던 큰

사진 3. 왼쪽의 팔달교 옆으로 대구 지상철 3호선 교각이 놓여 있다. (출처=필자 촬영)

강나루도 있었다. 교량이 놓이기 전 나루터에는 주막이라는 '정보소식통'도 생겼다. 팔달진 나루터가 있었던 곳에 지금은 팔달교가 걸려있다. 원래 대구의 북쪽 관문이면서 영남대로를 오가는 나그네들의 경유지였다. 이곳은 옛날 '노원'이라 불리던 곳으로 대구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난 선비나 길손들이 쉬는 장소이자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사람의 이별 장소였다.

조선 전기의 문인 관료인 서거정(徐居正)은 대구의 빼어난 풍경을 '대구 10영'이라는 시를 통해 읊었다. 그 중 8경에 나오는 '노원송객(櫓院送客)'은 그 정취를 느끼게 한다.

관도에는 해마다 버들 빛이 푸르고
주막은 수없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네.
양관곡 부른 후 서로 헤어져 돌아서니,
모래밭에는 두 개의 흰 술병만 나 뒹구네

여기서 노원송객은 나루터에서 손님 보내기라는 의미이고, '관도'는 서울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이며, '양관곡'은 이별의 노래를 뜻한다. 서거정은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관도에 푸른 버들 빛을 배경으로 노원에서의 이별을 노래했다. 지금도 팔달교 부근에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푸르게 자라고 있다.

팔달동 유적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팔달교 부근에는 강을 따라 잠들어 있는 신화의 현장, 대구 팔달동유적이 존재한다. 시내에서 팔달교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오른쪽 구릉 위에 있다. 유적은 함지산(函芝山)에서 남서쪽을 향해 뻗어 내린 낮은 능선지대 끝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금호강과 그 지류 상에 취락지가 형성돼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 예비군 훈련 중에 참호를 파다가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 후 지역 대학의 박물관에 의해 첫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유적은 그동안 대구지역의 조사가 대부분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삼국시대의 유적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대구권의 역사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서유교 영세불망비

팔달교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판관 서유교 영세 불망비(判官徐有喬永世不忘碑)'이다. 대구에서 칠곡 쪽으로 팔달교를 건너서 다리 끝부분에서 우측으로 돌면 비각이 보이고 그 안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부근에 있는 설명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판관 서유교 비는 1849년(현종15)부터 1851년(철종2)까지 대구 판관으로 재임했던 서유교가 당시 대구의 관문인 팔달진 나루터 즉, 현재의 팔달교 일대에 돌다리를 놓은 공적을 기려 세워진 것이다. 옛날에는 금호나루(금호진(琴湖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 쪽의 대노원(大櫓院)과 칠곡 쪽의 작원(鵲院, 까치원)을 잇는 영남대로에 위치한 나루터를 말한다.) 이곳은 강폭이 넓어 나룻배로 건너거나 얇은 곳을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물속을 걸어 다녔다. 겨울에는 섭다리를 만들어 다녔지만 많은 불편이 있었다. 높이 118센티(cm) 폭 48센티(cm)의 비석의 옆면에 새겨진 명문에는 '달성서씨인 공은 구계선생 서침과 약봉선생 서성의 규범을 준수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여 가벼운 발걸음 다리를 놓으셨다'고 새겨졌다. 일설에는 2년간 판관으로 재임하면서 받은 봉급을 모아 사재로 돌다리를 놓았다고도 한다.

사진 4. 현재의 팔달교 일대에 돌다리를 놓은 공적을 기려 세워진 판관 서유교 영세불망비 (출처=필자 촬영)



사진 5. 영세불망비각 옆으로 금호강이 펼쳐져 있다. (출처=필자 촬영)

비의 건립 시기는 약 170년 전인 1851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59세 때인 1849년 7월 대구 판관으로 부임하여 1851년 11월에 떠난 것으로 읍지(邑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지를 떠나기 한 달 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지역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는 이 비석은 처음에 금호강 남쪽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 후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왔으며 2015년 비각을 새로 건립하고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비각이 서 있는 곳에서는 좌우로 금호강이 펼쳐져 있고 팔달교와 하중도 일대도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위에는 제철을 맞은 백일홍도 붉게 피어 있다.

생각해보면, 서 판관이 돌다리를 완공하기 전에는 섭다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강을 사이에 둔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해마다 물이 줄어든 겨울 초입에 다리를 놓았다가 여름철 홍수로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했었다. 이 섭다리는 통나무를 Y자형으로 손질하여 거꾸로 세워 교각으로 삼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들을 놓고 평평하게 진흙을 깔아 둔다. 그러나 홍수 등으로 인해 다시 놓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돌다리 설치의 지역민의 염원이자 목표였다. 당시의 돌다리

상판에는 우물마루 공법으로 마룻바닥 놓듯 돌을 교각 위에 판재로 놓았는데 대부분 구하기 쉬운 화강석을 사용했다.

그 후 시대가 바뀌어 인구가 늘고 발달된 교통기관에 의한 물자의 교류도 빈번해지자 본격적인 교량이 필요해졌다. 팔달교의 변천을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보니, 1916년경에 있었던 다리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칠곡 노인의 구술 자료를 읽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철근이나 시멘트를 빼돌려 순사에게 잡혀가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사람은 설계하고 조선사람은 힘든 막일을 하여 완성시켰다고 한다. 사람들은 다리 위를 걸어서 건너다녔으며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가 많이 통행했다고 한다. 당시 팔달교 교량의 폭은 넓지 않았을 것이다. 1967년 3월 팔달교 확장공사 기공식을 하는 영상자료도 있었다. 그날은 대구 3공단 기공식도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팔달교 확장공사를 위한 점화 스위치를 누르는 영상이었다. 53년 전의 팔달교 모습으로 '사람은 좌측통행, 손수레는 우측통행'이라 적힌 표지판도 교량 입구에 보인다.



사진 6. 53년 전 팔달교 확장공사 기공식의 뉴스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사람은 좌측통행, 손수레는 우측통행'이라 적힌 표지판도 교량 입구에 보인다.



사진 7. 1967년 3월, 팔달교 확장공사 기공식을 하는 뉴스 영상자료 사진

팔달교 추억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언론사에 근무했던 필자는 취재차 자주 경북지방을 오르내렸다. 텅텅거리는 지프차를 타고 하루 종일 비포장도로를 다니다가 돌아오는 길은 길고 긴 다부재를 넘었다. 그리고 팔달교를 건너야만 이제 대구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당시에는 서부 경북지방으로 다니려면 유일한 통로였으니 팔달교 다리 위를 많이도 왕래했다. 철새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도 자주 팔달교 아래를 찾았었다. 그때는 강변도로도 없었고 환경은 찌들어 있었다. 하중도가 정비되기 훨씬 이전이라 비닐하우스와 골재채취 작업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도 겨울에는 왜가리 무리들 사이로 청둥오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니 세월의 흐름 속에 참 많이도 변했음을 느낀다. 바라본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장하게 흐를 뿐이다. 500년 전 서거정은 대구 곳곳에서 금호강을 바라보며 그 풍경을 감탄했었다. 지금도 금호강변을 따라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다양해졌다. 금호강 한 가운데 위치한 하중도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꽃 나들이 명소로 유명한 이곳은 계절마다 코스모스와 유채꽃의 장관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불거리가 다양한 운암지 수변공원, 함지공원, 구암서원, 침산정 등과 함께 대구 북구 8경 중 1경에 지정돼 있다. 대구 지상철 3호선인 명품 하늘열차는 금호강 일몰의 경치와 잘 어울린다. 이 모노레일 위로 볼 밝히고 지나는 열차와 대교의 불빛, 그리고 팔달교가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다. 조선 문인 서거정이나 서유교 대구 판관이 만일 다시 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앞으로의 팔달교 풍경

일전에는 팔달교 아래 교각 부근을 지나다가 수달을 목격한 적이 있다. 비록 사진은 놓쳤지만 생태 공간으로서 동물들의 보금자리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

다. 지역의 한 역사학자는 “대구 제8경에 꼽히는 노원 송객의 옛 주막거리를 되살리고 버드나무를 심는 등 옛 길 복원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한 지역구 의원은 금호강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곤돌라 및 수상택시 뱃길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선시대 서거정의 대구 10경 가운데 금호강에 배 띄우기인 ‘금호범주(琴湖泛舟)’처럼 배를 타고 경치를 감상하며 시를 쓰는 옛 금호강의 모습을 복원시켜서 뱃길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한가운데 위치하게 될 팔달교도 이제 좀 단장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교량도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사람이 옷을 입으면서 멋을 내듯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 멋은 그저 시각적 즐거움만 주려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다. 도시보다 교량이 더 유명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 먹고사는 세계 곳곳의 사례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다. 거센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오래 서 있는 견고성의 요청은 현대적 건축 재질과 공법으로 이미 충분할 것이다. 아름다운 팔달교가 될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리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담긴 인류 역사의 산물이면서 당대 최고 수준의 토목기술이 집약되는 건설물이다.

팔달교에 예술 입히기

아름다운 다리만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중년 사진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The Bridges Of Madison County)」를 읽고 영화도 본 적이 있다. 남자주인공 키키이드의 삶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영화의 무대가 된 아름다운 다리의 영상만이 기억에 남아 있다. 몇 년 전 북해도 쿠시로(釧路)시를 방문했다. 인구 18만 명 정도의 이 작은 항구 도시 가운데를 흐르는 강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 있다. 예술 작품들을 세워둔 다리 장식들을 보고 많은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 다리 난간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등신대 크기의 조각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도 다리 위를 걸어 다녔다.

이제 금호강을 대표하는 대구의 다리 팔달교에서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깔려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칠곡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리를 건너는 아낙네들의 행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옥양목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는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트럭의 그림도 연상된다. 강을 사이에 두고 신분이 차이나는 처녀, 총각이 만나 사랑을 나누던 곳, 해 질 녘 장에 갔던 아버지가 고등어 한 손을 들고 건너는 다리이다. 이별을 망설이다가 이제 다리만 건너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느 정도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는데 이 다리를 다 건너오면 생각을 굳히기도 한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이야기들이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주변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숨겨진 사연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Seine River)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르는데’로 시작되는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시 ‘미라보 다리’는 그 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다. 많은 작곡가들이 그 다리를 소재로 음악을 만들고 가수들은 노래했다. 문인들도 소설과 에세이, 화가, 사진가들에 의해 다리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어져 그 명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다. 지금도 파리의 미라보 다리에는 예술적 난간 장식이 있고 독특한 색상까지 눈길을 끌고 있다.

인류의 삶은 길을 따라 통하고, 그 길에는 다리가 있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세월과 같아서 흘러가면 되돌아올 줄 모르고, 다리 위를 걷는 나그네는 흐르는 물길을 보며 인생을 찾는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굳건히 버텨내온 팔달교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이다. 오늘도 내일도 물류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심으로 굳건히 존재할 것이다.

대고장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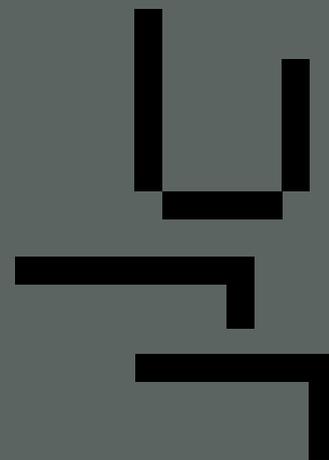
큰북(大鼓)을 제작하는 장인(匠人). 대고장 김종문선생은 1941년 스승 이원석에 입문하여 북 제작 기능을 배웠고, 현재까지 큰 북 제작을 가업으로 삼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SECTION 03.

복구를 담다



파우더룸



연암서당골 여·행(餘·幸)

서상우(연암서당골협동조합 이사장)

그림 김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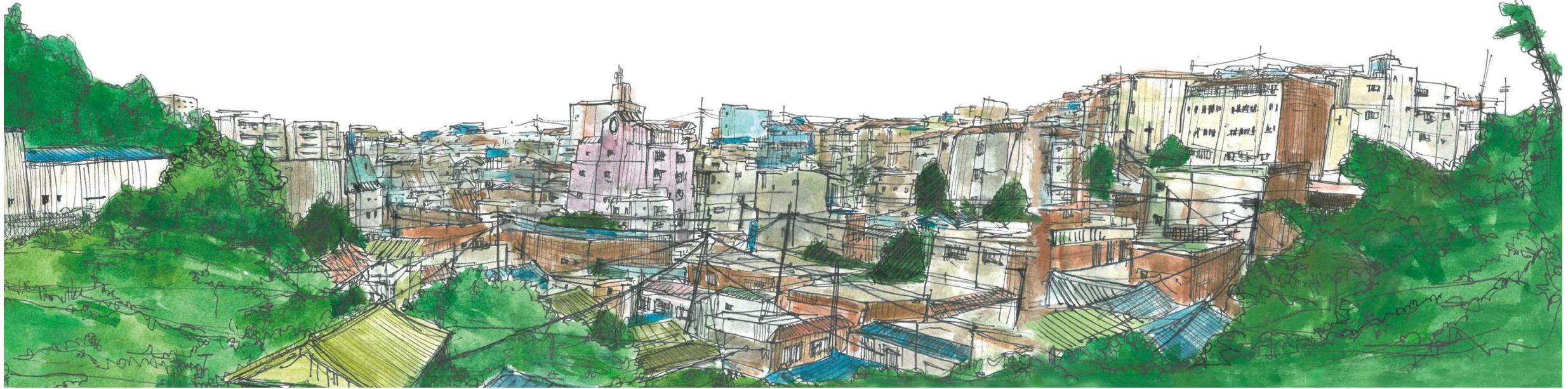


그림 1. 연암서당골 전경

제비가 행복을 물고 온 그곳, 연암서당골

‘연암서당골’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대구 외곽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암서당골’의 행정구역은 산격1동으로, 대구시청별관(구 경북도청)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동네이다. 대도시의 도심 한가운데 시골에서나 들어볼 법한 이름의 마을이라니! 정겨우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시청별관 뒤편의 마지막 산을 산격동 주민들은 산격수원지가 있어 편의상 수도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산의 정식 명

칭은 연암산으로, 옛날 신천과 금호강 위를 스치듯 날던 많은 제비들이 이 산의 절벽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멀리서는 이 풍경이 제비로 된 바위 같다 하여 제비 ‘연’(燕), 바위 ‘암’(巖)을 사용하여 연암(燕巖)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과거 연암산에서 신천으로 내려오는 길목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던 서당이 많

았다 하여 ‘서당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금도 연암서당골은 ‘웃서당-용담재(龍潭齋)’와 ‘아랫서당-일신재’가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계 서침(龜溪 徐沈), 사가 서거정(四佳 徐居正), 함재 서해(涵齋 徐懈), 약봉 서성(藥峰 徐省), 낙재 서사원(樂齋 徐思遠) 등 조선 시대 최고의 문인을 배출한 구암서원(龜巖書院)이 그 중심을 잡고 있어 그야말로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다.

사진 1. 웃서당으로 불리는 용담재.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재 서사원의 총절을 기리기 위해 1650년 세워졌다. 1976년 경북도청 확장으로 지금의 자리로 이전 하였는데, 높은 지대의 용담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절경이다.





사진 2. 구암서원에서 바라보는 시내 전경(출처=행복한 우리복구 전국폰카사진공모전 당선작)



사진 3. 구암서원과 연암서당골(출처=대구복구 행복복구사진공모전 당선작)

연암서당골의 중심이 되는 연암산 정상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팔공산과 앞산 그리고 대구 시내 대부분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연암산 정상에 있는 작은 정자에는 거의 매일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곳만큼은 여유로운 어르신들의 모습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하다. 연암산에는 정상으로부터 능선과 산허리를 따라 둘레길이 있어 많은 사람이 산책이나 운동,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다. 그렇게 연암산은 산격동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마을 최고의 휴식공간이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웅장한 한옥 건물로 구암서원이 나타난다. 서원은 지금의 사립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립 교육기관

으로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 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자 만들어졌다.

구암서원은 구계 서침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유림에서 1665년(현종 6년) 현재 대구제일중학교(봉산문화거리 일대)자리에 귀암사로 창건하여 이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구계선생은 달성서씨 세거지였던 달성공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이에 보상하려는 세종대왕에게 대구 부민들의 환곡 이자를 감해달라고 건의하여 조선말까지 대구 부민 전체가 혜택을 보았던 일화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구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1868년에 훼손되었으나, 1924년 유림이 다시 세우고 1995년 지금의 자리인 산격동으로 이전되었다.

구암서원은 구계 서침 선생을 비롯한 다섯 분을 모신 송현사(崇賢祠)와 강당인 초헌당, 그리고 동·서재, 연비루, 백인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음력 9월 1일에는 종원들과 대구·경북지역 유림분들이 모여서 향사를 지낸다. 나는 이곳에 오면 칠성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봄 소풍으로 항상 왔던 기억이 난다. 유년 시절 특별한 날에 찾아갔던 공간은 세월이 지나 다시 찾아도 당시의 기억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킨다.

현재 구암서원은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단법인에서 유교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청소년인성교육, 선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과거 서원의 기능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구암서원 건물을 활용하여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는 예술과 역사의 조우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여 분 정도 이어지는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하면서 땀 뚫린 대구 시내의 풍광을 바라봐도 참으로 멋진데, 그 이유로 대구 최고의 야경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음이다.

구암서원을 나서 가파른 경사진 길을 내려가다 보면 양쪽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게 된다. 구계 서침 선생의 박시제중(博施濟衆,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

어서 못사람을 구제함)에 관한 내용, 조선전기에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가 서거정 선생의 일생과 그 정신 등을 벽화에 담았다. 그 덕에 흰해진 골목을 따라가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본다.

능선 끝자락에는 조선 시대 24년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던 복곽 서명보의 효자각(孝子閣)과 앞에서 언급했던 용담재가 나타난다. 건립(1650년)한 지 3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겪게 되는 온갖 풍파와 아픔을 견디며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후손들의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용담재 특유의 소박함과 단아함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던 서명보의 효자각을 용담재와 함께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사진 4. 길 중간중간 놓여있는 포토존



사진 5. 서명보 효자각 병든 아버지를 24년 동안 극진히 간호하며 작성한 <시탕록(侍湯錄)>이 그의 사후에 발견되어, 훗날 조선 속중 때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그림 2. 연암서당골 골목

SECTION-03. 복구를 담다



사진 6. 연암서당골의 골목길. 연암산 아래 위치한 마을에는 가파른 길들이 굽이굽이 나 있다.



사진 7. 연암서당골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사소한 담벼락의 무늬마저 정겨운 느낌을 준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면 산격동 최초 교회이자 역사가 100년이 넘는 산격제일교회가 나온다. 이 길 따라 주변에는 나의 친척과 친구들의 집이 하나둘 나오는데, 지금은 다른 이가 살고 있기도 하다. 나 역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산격동을 떠나 살았다. 군대에 가고,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동네는 60, 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연암서당골에는 5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장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직도 오랜 주택들을 잇는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많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산격동 골목 시장이다.

골목 시장 주변 산격동 최초의 목욕탕인 성복탕이 자리한다. 명절이면 목욕하고 이발하던 곳이다. 이제는 문이 닫힌 곳이지만 그 추억은 씻기지 않았으리라.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는 폐업한 목욕탕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성복탕도 재생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이발소는 아직 그대로 영업하고 있다. 할아버지부터 3대가 6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가게로, 오래된 단골이다 보니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의 머리를 다듬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예전의 분위기와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발소는 여전히 동네 장년층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산격 골목시장은 1970년대에 가장 변화했었다. 당시 3공단의 조성과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교통과 거주 여건이 좋았던 이곳 산격동은 보금자리로 제격인 동네였다. 그때 산격1동 주민이 3만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의 생필품과 식자재를 공급했던 산격 골목 시장의 당시를 어른들이 회상하며 말씀하시길, “오가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 저녁 시장 때면 궁둥이가 받혀서 못 다녔지”라 하니 옛이야기로 그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림 3. 지금은 문을 닫은 성복탕. 어느 지역처럼 문화의 힘으로 또 다른 공간으로 다시 문이 열릴지 기대한다.



시장을 나와 마을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걷다 보면 고물상을 마주하는데, 요즘의 마을에서 많이 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 동네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박스와 각종 폐품들을 주워 용돈으로 쓰시고 생활에 보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어쩌면 여전히 남아있는 고물상의 풍경은 마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진 않을까?



사진 8. 연암서당골 골목길에서 만난 길고양이

그 옆으로 돌담이 아담하고 단아한 체화당(棲華堂)을 감싸고 있다. 고풍스런 동기와를 이고 있는 이곳은 달성서씨 재실로, 매년 설날 다음날이면 대중회 종친 100여 명이 합동 세배를 모신다. 이 풍경 또한 한편으로는 보통의 마을에서 보기 힘든 모습일 것이다. 이곳은 처음 연암서당골에 자리 잡은 이제 서사진(怡齋 徐思進) 선생 아들 삼형제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 1958년 건립되었다. 입구 화약문(花門)은 형제의 정을 뜻하며, 마당에 심어진 박태기나무와 앵두나무는 형제의 우애를 상징한다. 그 후손들은 내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고 문중의 대소사부터 마을의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하며, 체화당은 마을의 큰 사랑채 역할을 했다.

체화당을 끼고 왼쪽으로 길을 잡으면 서당골의 큰길인 연암공원로이다.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차량도 교행할 수 있도록 넓은 왕복 2차선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추어탕집이 있는 작은 네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일신재(日新齋)가 나타난다. 일신재는 1834년경 서사도의 후손들이 그의 공을 기리고자 건립한 재사로써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이후까지 아랫서당 역할을 한 교육의 장소였다.



사진 9. 용담재에서 바라본 연암서당골. 낮은 마을건물들과 뒤편의 고층 아파트의 모습이 의외로 조화로운 풍경이다.

일신재를 지나 짧은 오르막을 오르면 왼쪽으로 시청별관과 시 교육청, 산격동 우체국이 나타난다. 시청별관이 있는 자리는 달성서씨 선산이 있던 자리로 1966년 경북도청이 들어서고, 도청교를 통해 신천 건너까지 중앙로로 이어진다. 도청교 아래쪽에는 용바위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예전에 이곳이 용소라고 하여 풍광이 아름답고 멋진 바위와 소용돌이치던 물이 깊은 소가 있던 곳이다.

행복을 만드는 연암서당골 사람들

신천을 따라 마을을 둘러 나 있는 연암로의 성복교 부근, 서당골로 들어오는 길목에 ‘연암마을 목공소’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연암서당골 여행’이라는 산격1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비어있던 예전 산격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조성하였다.

예전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동사무소에 공간을 얻어 ‘상록회’라는 고등학생 봉사단체를 운영하였다.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을 청소를 하거나 야학을 운용하기도 했다. 그랬던 장소에서 지금은 목공을 통해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집을 보수하는 봉사 활동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연암마을 목공소에는 테이블쏘, CNC각인기 등 다양하고 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책장, 불박이장, 벤치, 평상 등 규모가 큰 가구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시계, 좌탁 테이블, 협탁, 도마, 연필꽂이 등 소품들도 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주민들이 동아리 회원 12명이 주문을 받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도마, 테이블, 책장과 같은 다양한 목공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공교육 등 목공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목공소 맞은편 새마을금고 옆으로 돌아가면 역시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카페 연암'도 자리하고 있다. 커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 3년 동안 바리스타 교육, 카페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쌓았다. 최초에는 노란색 컨테이너를 카페로 만들어 운영했는데, 주민 역량이 올라가고 카페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2층으로 증축하였다. 지금도 노란색 컨테이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카페 증축 계획단계에서 노란색 컨테이너가 가진 의미와 잠재된 공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2층만 증축했다고 한다. 현재 카페는 마을 주민들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서당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목공소와 카페는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암서당골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법인 사업체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이 필수적인 조직이다. 그런 이유로 마을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현재는 좀 더 지역에 공헌하고 공익적인 측면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연암서당골이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인프라를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사진 13. 연암서당골 마을주민잔치(출처=필자 제공)

사진 10.11. 연암마을 목공소



사진 12. 카페 연암. 주민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와 또 직접 굽는 빵의 맛있는 냄새가 반겨준다.

나에게 연암산과 마을 내의 크고 작은 골목길, 지금의 목공소와 카페 주변과 신천은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 자치기, 제기차기, 구슬치기, 칼싸움을 했던 추억의 장소이고 썰매를 타고 물놀이 하며 물고기 잡던 바로 어제 같은 곳이다. 그때는 아주 넓고 넓었던 공간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다시 마주하는 골목은 매우 좁고 단순한 곳이 되어 있었다. 골목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은 탓 일게다.

나의 부모님은 태어나셔서 90년을 한 곳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그런 부모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과거 산격동의 동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지금 목공소인 동사무소 건물을 지으셨고, 퇴임 후에는 그 맞은편 새마을금고를 설립하셨으며 새마을지도자로 마을 곳곳을 가꾸셨다. 그리고 구암서원을 이건 하는 실무 책임자로, 대구향교 전교로, 대구시 초대 시의원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 지금도 달성서씨 대종회 일을 맡아 보시는 아버지를 40여 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내가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의 유지도 이으며, 작은 힘이나마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어 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나의 행

복이고 삶의 보람일 것이다. 그 옛날 마을이 생겨났을 때부터 여기 서당골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마을을 생각해왔다.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의 향기가 진하게 배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연암서당골이다.

연암서당골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마을이지만, 새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펴보니 그 풍경 속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과거가 속속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나친 자리에서 지금도 함께 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사실, 글로써 400여 년 삶과 그 흔적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연암서당골의 최근 소소한 이야기조차 다 실지 못했다. 그러기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보는 것이 그 진짜 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관심이 있거나 남은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을 더 활짝 열어 놓도록 하겠다.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 이야기

김지형(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 대표)



사진 1.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의 메인 행사장은 실제 논두렁이다. 논두렁에 펼쳐진 관객석에서 공연을 관람 하고있는 마을 주민들(출처=필자 제공)

나지막한 산자락에 둘러싸여 넓게 펼쳐진 들녘, 뜨거웠던 여름을 고스란히 담아 영글어가는 벼 이삭. 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평범한 시골 풍경 같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면 거대한 도미노를 줄지어 놓은 듯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전형적인 도시풍경이다. 언뜻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것도 같지만, 논두렁 사이로 유유히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의 모습이 자연스럽기만 하다.

대구 북구, 그중에서도 금호강 북쪽 지역은 대구 칠곡, 강북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옛 칠곡 지역이면

서 90년대 말 대규모 택지개발로 대구 북쪽 끝에 조성된 인구 25만에 이르는 신도시다. 겉으로 보기에 대구 어느 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십수 년 사이 지역에 새롭게 유입된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재미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 일명 ‘허수아비 축제’다. 빼곡한 아파트 행렬과 넓은 들판이 만나는 조금 어색한 이곳이 바로 그 축제의 현장이다.

모두의 정원에서 펼쳐진 재미난 작당

지칠 줄 모르고 팽창하는 도시의 끝자락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버티고 있는 건 이곳이 바로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농업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특수 농지이기 때문이다. 20여만 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농민들에게 공급할 종자를 생산하고 다양한 농업 관련 시험 재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도심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고 평소에도 동네 주민들에게 산책 코스이자 공용 정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출렁거리는 논두렁밭두렁축제’라는 이름으로 2013년 가을 처음 열렸을 때만 해도 이 공간이 아까워 시작한 소박한 작은 행사였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 같았던 이 들판에서 뭔가 재미난 작당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던 단체나 모임이 하나둘 발을 들이면서 시작부터 시끌벅적한 동네잔치가 만들어졌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단체, 초

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참여하면서 각각 크고 작은 놀이거리를 가져와 논두렁에 펼친 게 전부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구나 즐겁게 놀았다.

추수가 끝난 논 위에서 직접 만든 연을 날리고, 유모차 부대(?)가 논 사이로 퍼레이드를 하고, 누구는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고,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마이크를 들고 기타를 치며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마치 놀이축제가 벌어지는 공간이던 것처럼 말이다. 누가 운영자고 누가 놀러 온 사람인지 구분도 없었다. 객석도 무대도 없이 들판 위에서 논두렁에서 그렇게 걸판지게 하루를 신나게 놀았다. 어쩌다 시작한 작당에 모두 만족했고 자연스레 매년 10월에 열어 벌써 일곱 해를 넘겼다.



사진 2. 빼곡한 아파트 옆 넓은 들판에서 연날리기를 체험하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출처=필자 제공)

주인공이 된 허수아비

그 이듬해부터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출품하는 방식의 공모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축제 현장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각자 미리 자신만의 방법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와서 전시하고 시상도 했다. 주최 측에서는 이를 위해 나무 틀 정도를 미리 제공했을 뿐인데 정말이지 다양한 허수아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얼핏 허수아비를 떠올리면 흰 옷을 걸치고 밀짚모자를 쓴 정도가 생각나겠지만 공모전에 나오는 허수아비는 동화 속 주인공이나 만화 캐릭터, 영화 속 슈퍼 히어로, 한복 입은 여인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무술가까지 상상도 못 할 다양한 모습이었다.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공모전 출품작은 조금씩 늘어나 작년에는 120여 개의 허수아비가 출품됐고 각자 제작한 허수아비는 10월 중순부터 논두렁을 따라 전시해 축제 당일인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지역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로 제공된다. 최근 들어서는 공모전 출품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는 주민들이 생겼을 정도로 제법 알려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예 축제 이름을 '허수아비 축제'로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많다. 자연스럽게 출품작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매년 허수아비가 전시가 시작되면 어린이집 단체 방문객은 물론 가족 단위로 산책을 겸해 나서는 주민들, 주말 나들이 나온 연인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시도 보고 포토존 삼아 사진 찍는 모습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 3. 실제 행사장에 전시된 허수아비(출처=필자 제공)



사진 4. 공모전에 출품된 허수아비 모습들(출처=필자 제공)

시민 중심의 축제가 아닌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

전국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8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각종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부터 안동 탈춤축제와 같은 문화행사 중심의 축제, 불꽃축제처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까지 정말이지 다양한 축제가 넘친다.

그런데 사실 지역축제라고 하면 전형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전국노래자랑이 연상되는 그럴듯한 무대, 뽕뽕한 음향시설, 초대가수, 천막을 넓게 치고 술과 음식을 파는 장터, 어느 구석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 무대에 새겨진 행사명에서 지역 이름이나 특산물 이름만 바꾸면 전국 어디서 펼쳐져도 어색하지 않은 익숙한 마을 축제의 모습이다. 물론 내실 있게 준비하는 축제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 가장 궁금해지는 건 이런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점이다. 관광객 유치에 위한 것일까 아니면 특산물 매출이나 소비촉진이 목표일까.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축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지점에서 보면 축제를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한다. 대형 지역축제의 상당수는 사실상 전문 기획사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지자체 등의 후원 아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알려지는 지가 그 축제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된다. 또한, 행사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나 관객의 발길을 모았는지가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획과 재원이 집중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지역 축제를 즐겨야 할 시민, 주민들이 그저 관객의 역할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다. 물론 팍팍한 일상에서 이런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을의 축제가 좀 더 공동체를 살찌우고 지역의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바

로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만든 축제로서의 자부심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란 시민이 '직접' 준비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마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런 의미에서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축제다. 우선 기획 단계부터가 그 시작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다. 기획팀을 꾸릴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발을 걸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을 축제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별도로 청소년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마을의 구성원인 만큼 마을 축제 속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그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제의 여러 공간을 채우는 것 또한 주민들이다. 허수아비 공모전에 참여하고 무대는 마을의 각종 음악 동아리 공연으로 채워진다. 초청 가수 공연이 들어갈 자리가 애초에 없다. 메인 행사장인 넓은 논두렁에는 지역의 단체나 모임, 개인이 코너 하나씩을 맡아 운영한다.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종 체험 부스, 먹거리, 거리 버스킹 공연, 공익적 캠페인까지 다양한 주제의 부스가 수백미터 논두렁 위에 펼쳐진다. 마을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장터를 열고 축제에 쓰이는 각종 시상 상품을 후원한다. 지나친 상업성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주제로든 참여할 수 있다. 마을 축제라는 플랫폼에 주민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다.



사진 5.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 기획팀을 운영한다. 청소년밴드의 공연 모습(출처=필자 제공)



사진 6. 논두렁을 따라 지역의 단체나 모임, 개인들이 맡아 운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부스들이 길게 늘어선다. (출처=필자 제공)

다만 한 가지 제약이 있다.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에서는 현금 거래 대신 축제 화폐가 사용된다. 물건을 사거나 체험비를 낼 때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전용 화폐로 환전해 사용해야 한다. 축제 전용 화폐는 행사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자체 행사기금 조성(환전 시 일정 비율 공제)을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참여하되 축제 화폐를 통해 큰 울타리 안에서 축제를 함께 만드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수익금 일부는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체험비 지원에 쓰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역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전과 사뭇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이 되면서 앞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벌써부터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축제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초토화’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당장 축제라 이름 붙은 대부분의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상황이다.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던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취소됐다. 이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 정국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망과 교류,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웃을 돕고 어려움을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사회적 시스템 즉 공동체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의 힘은 일상에서 관계의 축적과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회적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축제 또한 이런 관계의 축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개별 사이의 관계가 작은 모임이나 단체로 확장되고 이들이 모여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공간이 바로 마을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는 서로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중요시하는 만큼이나 일상적 사회관계를 유지, 회복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축제라는 영역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행사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고민과 기획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좀 더 자라는 자리가 되도록 애쓰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어떤 형태든 앞으로 마을 축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들판은 사라져도 축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에는 무시무시한 딜레마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마을 축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자 지금도 지역민들의 소중한 정원이 되고 있는 넓은 들판이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청 이전 후속으로 관련 기관과 시설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아직은 명확한 이전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몇 해 안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계획에 따르면 이전 후에는 같은 자리에 주로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많은 주민이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때가 되면 마을 축제는 어떻게 될까. 들판이 사라진 자리에 허수아비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어울리기는 할까. 축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 걱정과 고민이 꼬리를 문다.

걱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마을 축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들판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도 허수아비라는 하나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다. 바로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마련한 것이 마을 축제가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공동체의 실체를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마을을 떠나기 싫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바로 축제다.

다시 말해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를 만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고 싶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축제의 장에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주민들이 존재하는 한 축제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져 그 자리에서(혹은 조금 다른 자리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누군가 만들어준 축제를 찾는 관객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공이자 동시에 관객이기 때문이다.

10년 후 가을,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사진 7. 실제 행사장에 전시된 허수아비(출처=필자 제공)





이인성 사과나무길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이 유년시절
화가의 꿈을 키운 산격동에 조성된 벽화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함지 그 첫 그릇을 기념하며 발간 축하인사

미술평론가 권원순



변방에 문화예술의 깃발이 올랐다.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일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다. 우리의 일상을 감성과 사유로 걸러낸 예술을 담은 「함지」, 그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 창작, 기록을 담은 인간의 자산이며 역사이다. 「함지」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김재우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행복복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담론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문화의 힘이 도시 경쟁력의 원동력인 만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함지」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지역문화를 담은 큰 그릇이 되어 지역 예술 장르 간 소통의 장으로 꼭 채워지길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목어철학부장 백승연



삶은 「함지」에서 시작하고, 「함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사람다운은 특물하는데 있지 않고 특심하는 문화에 있으니 거기에서 「함지」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의 본향입니다.

종현예술 ART(장르전) 기획팀 단장 예술감독 신재승



문화 예술담론지 「함지」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민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행복복구문화재단에서 노력하고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민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담론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시인, 함구대주메와헬멧센터 대표 이복찬



어린 시절, 나는 북구 고성동에 살았다. 소년은 걷고 또 걸어서 그 머나먼 '반딩이산', 지금의 함지산을 다녀왔다. 그 아련한 원족(遠足)의 추억은 아직도 내 가슴에 담겨 있다. 행복복구 문화예술 담론지 「함지」의 발간을 축하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갈지 자못 기대가 된다.



행복복구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를 창간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대를 담다, 기억을 담다, 복구를 담다'라는 발간 취지를 잘 살려서 지역 문화예술계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구문화재단 권정익 회장



「함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구 북구 지역은 오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닌 곳입니다. 「함지」는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지역문화의 모습들과 담론들을 수합하고, 역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떠나갈 가장 아름다운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화로 멋진 복구를 위해 박수!



「함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복구는 팔공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며 금호강의 유장한 물결과 복녘 들이 있어 구민들의 인정이 모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새로 창간되는 함지를 통하여 많은 지식과 문화예술의 소식을 담아 뽀아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넘쳐나는 문화예술담론지와 달리 「함지」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기억과 복구를 담는 태도도 방법도 좀 차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선으로 고정화된 식상한 시선을 내던지고 천개의 눈으로 지금 '여기' 삶의 조건에 부응하는 매력적인 담론지로 태동하길 기대합니다.

대구문화재단 수석회장이장 채정연



지역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시대의 담론을 형성하고 기억을 담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어렵고 소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출판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대구문화예술의관장 최정우



문향 가득한 복구의 길잡이로 문화예술담론지 「함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북구주민들에게 문화의 행복감을 함지산만큼 큰 바구니로 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복구는 고대에도 음악국가가 존재했고 조선조에 와서도 한 때 경상도의 중심이었을 만큼 일찍부터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함지」의 창간이 복구의 화려한 문예 부흥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을 담은 만만한 그릇

함지 

함지

문화예술담론지 함지

Vol. 1

발행인

배광식

발행일

2020년 9월 8일

편집위원

김영동, 김종기, 박미영, 오레지나,

이재진, 정성희

편집기획

이현정, 이주현, 정연규

편집디자인·제작

상상146

발행처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T. 053-320-5120

www.hbcf.or.kr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는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비매품)

「함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지」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함지」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

신청바랍니다.

T. 053-320-5196



문화예술을 담은 만민환 그릇

함치

발간등록번호

11-B553910-000001-09

ISSN 2733-8878